

ISSN 2384-373X

달서문화만개 Vol.16



달서문화만개

(재)달서문화재단 소식지
Dalseo Culture Foundation

Vol.16



달서문화재단



FSC 인증 친환경 종이를 사용하였습니다.



달서문화재단
DALSEO CULTURE FOUNDATION

2021
가
가
만

아름답게 나이 들게 하소서

아름답게 나이 들게 하소서
수많은 멋진 것이 그러하듯이
레이스와 상아(象牙), 황금
그리고 비단도 꼭 새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나무에 치유력이 있고
오래된 거리에 매력이 깃들어 있듯이
저도 이들처럼 나이 들어감에 따라
더욱 아름다워질 수는 없나요.

미국의 여류시인 칼 윌슨 베이커(Karle Wilson Baker)의 시 'Let Me Grow Lovely'다.
아름답게 나이 든다는 의미는 사람마다 제각각이지만
시인은 타인과의 '관계'와 세상을 향한 '열린' 아름다움을 갈망하고 있다.
어릴 때나 젊을 때나 늙어서나 사람은 항상 누군가에게 누군가다.

SENIOR

Cover Story



김종연 「밤새.. 목포 서산동」
90.9cm x 65.1cm

적막 속 겹겹이 쌓인 집들은 이내 사람으로 보이고 그 표정마저 읽혀진다.

따스하지만 애잔하다.

가로등 불빛 너머 길게 늘어진 그림자 속 이야기처럼

나의 그림에도 많은 이야기가 소복소복 쌓여지면 좋겠다.

CONTENTS

Dalseo Culture Foundation

Vol.16

theme

Column

08
행복한 노년의 삶,
여가와 문화생활에 답 있다
_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소영 선임연구위원

14
노인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서
_ 선배시민 저자,
PH마중물미디어 유해숙 대표

18
실버 커뮤니티, 멋진 선배시민의
삶과 예술이 꽃 피는 곳
_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구민정 교수

24
나는 액티브 시니어?
뉴 시니어시대가 왔다
_ 달서가족문화센터
박영빈 운영지원팀장

26
기획특집 : 제4차 생각나눔포럼

with Dalseo

Story

36
문화와 예술이 숨 쉬는 숲, 공원(公園)
_ 뉴욕 센트럴 파크와 대구 두류공원

Place

40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동네 책방
_ '파이데이아북스'

42
'숨씨'로 바른 먹거리 전파
_ 숨씨협동조합

44
우리 동네 제로 웨이스트 숍
_ '타에르셀바'

People

46
'밤의 화가' _ 김종연

48
평생 배움, 잘 갖춰진 복지제도
한국 오길 잘했어요
_ 결혼이주여성 쉬레이(徐磊)

50
춤은 나의 인생
춤으로 어르신들께 활력 주고파
_ 무용협동조합 춤날 이승대 이사장

52
빛으로 그리는 무대(舞臺) 이야기
_ 달서아트센터 채승훈 조명감독

ON Air

54
영화 '검은 사제들' 속 월배성당

from Dalseo

Review

60
달서문화재단
_ 2022 희망달서 큰잔치

62
달서아트센터
_ 레이 첸 & 선우예권 듀오 리사이틀

64
달서아트센터 아카데미

66
달서가족문화센터
_ 공부는 왜, 어떻게 해야 하는가?

68
달서가족문화센터,
신달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Preview

70
달서문화재단

72
달서아트센터

74
달서아트센터 아카데미

76
달서가족문화센터,
신달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발행인 (재)달서문화재단 이사장 이태훈 발행처 (재)달서문화재단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회관길 160(장기동) 2F 문화정책실(053-584-9712)
발행일 2022년 12월 기획 (재)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 편집위원 김영남, 김옥렬, 박경숙, 박지운, 이성욱, 이창원, 임현우, 채재휘, 최재수, 최현목
디자인/제작 동아문화사(053-252-9060) 2022 NO.16 비매품 ISSN 2384-373X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은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달서문화재단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재)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로 신청바랍니다.

theme

.....

시니어의

문화·예술 주체화

법에서 규정하는 노인의 연령은 65세 이상이다.
하지만 요즘 65세는 스스로 노인으로 살기를 거부한다.
액티브 시니어, 율드(YOLD; Young old), 선배시민으로 살기를 원한다.
전문가의 칼럼을 통해 우리시대의 새로운 노인상(像)과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지향점을 들여다봤다.



행복한 노년의 삶, 여가와 문화생활에 답 있다

윤소영

인간은 언제 행복한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배고픔이나 추운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 행복감을 느끼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됐을 때 매우 만족한다고 한다. 따라서 예전에 누렸던 행복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즐거운 사건이나 행동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반복하려고 하고, 생활하면서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행위에 완전히 몰입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개인적인 행복감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인정도 받고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더 높아진다고 한다. 나아가 여러 영역에서 균형적인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가치에 골고루 관심을 가질 경우 그 행복감은 최상이 된다고 한다. 즉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즐겁게 하되,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균형적인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행복한 장면을 자주 만나는 접점이 문화생활이나 여가활동을 하는 순간이라는 결과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여가는 스스로 하고 싶은 활동을 직접 참여해 체험을 통해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이며, 그 활동 자체가 가지는 즐거움과 최적화된 심리적 상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좋아서 하고, 하다 보니 더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혼자서 오랫동안 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날씨 탓을 하거나 몸이 안 좋다는 개인적인 핑계로 미루기도 한다. 때문에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모임을 만들고 같은 취향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려고 한다. 즉 일 이외의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하면서 지속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위에서 언급한 행복의 조건과 일맥상통한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여가경력 쌓아야 돼

평균 수명이 늘면서 남은 생애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아프지 않은 '건강수명'은 기본이고, 건강하면서 행복하게 생존하는 '행복수명'이 중요한 관심사가 됐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윌리엄 새들러(William Sadler)는 "인생 80대를 산다고 가정해도 20세에서 60세까지 40년 동안 지나는 노동수명(약 9만 시간)은 60세 이후 최소 20년간 자유 시간(9만 시간)과 맞먹을 것이기 때문에 70대 이후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40대 이후 30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했다. 즉 노령기를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40대 이후 30년간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실정은 미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채 공부하고 일하다가 그냥 노후를 맞이하게 된다고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행복한 경험을 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여가활동이 필수적인데 우리나라 실버 세대들의 여가활동은 다양하지 못하고, 휴식 위주의 활동이 대부분이다. 또 사회적인 관계도 친목단체나 종교 관련 사회활동 중심이다. 때문에 적극적인 여가활동이나 문화적 참여를 통한 만족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연령대가 높은 60대나 70대 이상의 여가활동 참여 개수가 적으며, 취미오락활동의 비중은 적고 휴식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 젊었을 때나 적어도 40대 이후에도 정기적인 문화예술과 스포츠, 관광 등을 하는 사람이 어쩌다 한번 단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 비해 성공적인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노년기에 사회봉사 조직에 가입돼 있거나 교제범위가 넓고 지적·예술적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들이 젊었을 때 그러한 활동들을 해왔던 사람들이며, 반대로 은퇴 이후에 여가활동이 적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이 젊었을 때 여가 관심의 범위가 한정되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

쉬운 말로 '놀아본 경험이 있어야 나이 들어서 잘 놀 줄 알며, 이러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여가도 경력'이 필요하다(Leisure Career)는 것이다. 직업을 갖기 위해서 온갖 스펙을 쌓고 경력을 관리하는 것처럼 노후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지려면 여가경험과 경력이 쌓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가경험과 경력 개발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가정 내에서나 외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경험을 쌓는다. 그런 다음 자기가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활동 1~2가지를 선택해 집중적인 참여를 하고, 동호회나 커뮤니티에 가입해 확장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험은 축적되고, 전문가의 반열에 오르거나 본인의 활동을 타인과 나누려는 행동방식으로 나타난다. 즉 사회적 여가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참여를 시작하는 것이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베이비붐세대, 적극적인 여가활동과 공유 통해 존재감 부각

최근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인 신중년 세대가 노인 인구로 편입되면서 노인사회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약 716.7만 명)가 2022년 현재 59세에서 67세에 해당되면서 새로운 세대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은 그 이전 세대인 70대 이상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문화경험이나 정보통신 기술에 능통하며 교육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된다. 이들은 실버시장의 소비 주도층으로 불릴 정도로 자기 자신에 투자하고 유행에도 민감하며, 자신만의 취향과 브랜드를 추구한다. 실버산업 가운데 여가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정도로 문화와 여가활동에 적극적인 세대로 이해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기술로 축적한 재능을 다른 고령자나 다른 연령층과 공유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공유를 통해 스스로 사회적 존재감이나 정체성 회복을 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실버마이크' 사업을 들 수 있다. 실버마이크는 60대 이상의 실버세대들이 단순히 문화를 향유하고 참여하는 것을 넘어 실버 예술가로 활동하면서 지역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마당(장, 場)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다. 전국 단위로 만 60세 이상 실



버 예술가나 예술가팀을 발굴해 공연을 통해 지역주민과 만나고, 실버 예술가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하여 자긍심을 고취하는 교류를 활발히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버세대들이 주민들을 만나고 공감하며, 자신들의 활동에 격려를 받아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 노인 단독가구가 증가하고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와 외로움의 문제들이 이슈로 제기되는 현 시점에, 실버세대들의 삶의 질과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2022년 실버마이크 사업을 신청한 지역의 실버 예술가 신청자의 평균 경쟁률은 3.7대 1로 나타난 사실로 보아, 실버세대들의 문화적 욕구와 활발한 참여를 예측할 수 있다. 이외에도 조손(祖孫)세대 간의 전통 무를 교육을 모델로 한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나 '실버문화자원봉사단' 등도 활성화되고 있다.

실버세대들은 문화를 향유하고 참여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화예술적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길 원하며, 공연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잠재되어 있는 욕구나 적극적인 활동을 끄집어내 실현하고자 하는 자체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실버세대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여가생활 설계

실버세대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원칙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건강한 여가는 당연히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직접 참여해 행동했을 때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보는 것보다는 그림을 직접 그리는 것이 더 건강한 것이다. ▲ 여가활동 중에서 창조성을 포함한 여가활동은 그렇지 않은 활동보다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한다. 예를 들어 게이 트볼을 여가활동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기본 동작과 경기 규칙 방법 등을 배워야 하는데 이러한 배움은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 여가활동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정이나 복지관에서 노인 프로그램을 배울 때 그저 가르쳐 주니 배운다는 수동적인 생각보다는 건강과 여가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여가로 여겨질 수 있다. ▲ 여가활동으로부터 무엇인가 얻기보다는 활동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즉 등산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바라는 것보다는 등산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 외로움 때문에 죽지는 않겠지만 인간관계의 부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을 수는 있다. 여가생활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8월 현재 국내 100세 이상 인구는 총 8,469명이다. 올 한 해에만 2,398명이 100세를 맞았다. 길어진 수명만큼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도 커질 것이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행복한 노년의 삶,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생활에 답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
윤소영 선임연구위원

노인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서

유해숙

“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노인(No人)이래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2008년 인천의 한 노인문화센터에서 강의 중에 들었던 내용이다. 충격적이었다. 나도 곧 노인이 될 터인데 No人이라니 말문이 막혔다. 그 때부터 노인에 대한 새로운 이름을 찾기 위한 탐구를 시작했다.

노인은 육체와 정신이 쇠퇴한 사람으로 분리이론(disengagement theory)으로 설명된다. 이 이론은 노인이 되면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노인을 분리이론에서 이해하면 노인은 신체와 심리, 사회로부터 분리된 늙은이로서 돌봄의 대상이 된다. 늙음은 자연스럽게 사회로부터 퇴각하는 단계이고, 이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분리이론은 사회로부터의 퇴각하는 것이 노년의 운명 같은 것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활동적인 액티브 시니어의 출현

그런데 새로운 노인이 나타났다. Active Senior! 액티브 시니어는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노인으로 보통 경제력이 있고 학력과 능력이 있는 존재이다. 성공한 노년(successful aging),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 등으로 개념화된다. 액티브 시니어는 자기계발, 자기관리, 건강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은퇴 후 활력이 넘치는 바쁜 노인들이다. 베이비부머들이 노인 인구에 편입되면 액티브 시니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5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이 실시될 즈음인 1963년까지 출생한 이들은 전체 인구 중 14% 남짓으로 700만 명을 넘어선다. 대학을 나오고, 민주화를 경험했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기존의 노인 이미지와 달리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기도 한다. 액티브 시니어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한다. 문제는 여기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의 특정 노인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학력, 경력, 경제력 등 사회적·경제적 자산이 어

느 정도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노인은 문제의 원인을 구조보다는 개인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성공의 요인을 근면, 자립, 자조의 맥락에서 이해한다. No人의 불행은 그의 탓이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중심에 놓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자, 더 나아가 이기주의자일 수도 있다. 즉 자신의 여가, 취미, 자기계발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공동체의 문제나 타인에 대해 무관심하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으로 보면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No人일까, Active Senior일까? 필자는 노인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둘 중의 하나의 인간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렇다고 노인을 어르신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어르신은 ‘Know人’, 즉 모든 것을 알고 경험이 있는 존재로 묘사된다. 어르신은 금욕, 양보, 지혜 등 미덕을 가진 존재이다. 어르신으로서 노인은 행복할까? 현자이고 신비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금욕, 양보, 어른인 척, 젠 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잇값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들을 수 있다. 필자는 노인이 No人, Active Senior, Know人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비판한다. 노인도 보통 사람처럼 자신만의 경험, 역사, 개성, 경제력, 생각, 관계 등이 있는 복합적인 존재이다. 노인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늙음이다. ‘생물의 숙명으로서 노화가 초역사적인 현실이기는 하나, 그래도 그 운명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된다’라는 보부아르의 언급처럼 사회와 정치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즉 어떤 계급, 권력관계, 정치, 국가에 사느냐에 따라 상이한 삶을 살아간다.

진정한 시민권의 주체 선배시민

필자는 시민권의 관점에서 노인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한다. '노인은 나이든 시민, 즉 선배 시민이다' 선배시민은 공동체의 일원인 시민이며 후배와 함께하는 시민선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연령, 의무, 권리와 연관된 개념이다. 선배시민은 자신과 이웃을 넘어서서 국가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선배의 지혜와 책임을 다하려는 시민을 의미한다. 이것은 돌봄의 대상인 늙은이와 자신만을 돌보는 성공한 노인, 공동체에 대해 훈수만 두는 어르신과 달리 공동체를 돌보는 주체이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어르신은 존경의 대상이지만 사회와 정치로부터 초월해 있는 현자의 이미지이다. 하지만 선배시민은 시민성을 갖고 시민권을 요구하고 실천하는 존재이다. 후배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학습하고 연대하는 존재이다. 어르신과는 달리 선배시민과 후배시민의 관계는 수평적이다.

늙은이는 수동적이고 돌봄의 대상이다. 빈곤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배고픔과 추위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이 된다. 모든 책임은 개인에 있으며 국가나 사회에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선배시민은 헌법 34조 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사회권(복지권)을 권리로서 요구한다. 이들은 시민권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과 공동체를 돌보는 주체이다.

선배시민과 유사해서 가끔 혼동되는 개념이 액티브 시니어 혹은 성공한 노인이다. 활동적이고 참여적이라는 측면에서 양자는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인식과 행동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액티브 시니어가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가 개인적인 삶을 기반으로 인식한다면 선배시민은 개인을 넘어서서 시민권의 실현이라는 측면, 즉 정책과 구조적 요인에 주목한다. 또 액티브 시니어가 개인의 노력과 실패한 개인에 대한 자선적 실천을 한다면 선배시민은 사회권의 결핍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따져 묻는다. 선배시민은 나를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묻고, 시민권의 관점에서 더 나은 공동체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존재이다. 노인이 선배와 시민으로서 생각하고 실천할 때 그는 권위와 품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배시민은 늘 학습하고, 토론하고, 실천하는 시민이며, 후배들을 대변하고, 이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시민선배이다.

선배시민과 후배시민이 함께 공동체 돌봐야

선배시민은 이상이 아니다.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고 실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2009년 사단법인 마중물은 '선배시민지원센터'를 두고 선배시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노인복지관 등 수많은 현장과 함께 선배시민을 교육하였다. 한국노인복지관협회는 2015년부터 선배시민대학을 운영하고 2018년부터는 보건복지부 프로젝트로 선배시민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20년부터는 지역별 선배시민총회와 전국 단위 선배시민 정책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선배시민의 담론에 대한 이론과 실천을 체계화하기 위해 선배시민학회가 창립되었다. 선배시민학회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북 콘서트를 진행하고, 선배시민과 후배시민이 함께하는 포럼을 개최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선배시민의 희망의 근거는 '선배시민'이 되신 분들이다. '선배시민이 되고 나니 귀가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더라'라고 고백하면서 후배시민과 공동체를 돌보는 분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노인복지관에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던 분들은 후배시민의 건강도 돌보고, 마을의 사회체육시설을 돌보고, 코로나19 시기에 공동체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후배시민과 공동체를 돌보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새로운 노인상은 노인복지관이 돌봄에 치중하는 서비스센터에서 선배시민과 후배시민이 함께 학습과 토론하는 지역공동체의 거점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의 새로운 정체성, 선배시민은 시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담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반이리라. 또한 시민이 생존을 넘어서 문화예술까지 향유하는 실존적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한 동력 이리라. 선배시민의 힘찬 선언이 끌어올리는 희망의 근거가 기대된다.

우리는 무기력한 늙은이도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자도 아니다.

우리는 선배시민이 되기 위해 늘 함께 생각하고, 질문하고, 상상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돌봄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고

후배시민과 공동체를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선배시민이 걸어가면 그것은 곧 공동체의 새로운 길이 될 것이다.

(선배시민 선언문 중)

선배시민 저자,
PH마중물미디어 유해숙 대표



실버 커뮤니티, 멋진 선배시민의 삶과 예술이 꽃 피는 곳

구민정

은빛 머리는 나이든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나이든 사람들은 노인(老人)이나 노년(老年)보다 시니어(Senior) 혹은 실버(Silver)로 불리기를 바란다고 한다. 인간은 누구나 세월과 함께 나이 들어간다. 이것은 숙명이다. 그럼에도 젊음과 생산성의 이미지를 더 선호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지향은 노인이라는 말에 대해 정서적으로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실버나 시니어라는 말은 노인이나 노년이 주는 부정적 느낌을 조금은 순화하는 감이 있다.

어느 사회든 실버의 문화는 그 사회의 나침반이며 자산이다. 왜냐하면 실버 세대는 젊은 이들이 마주하게 될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실버들이 끈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외견 상 멋진 은빛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시간의 소멸이라는 인간 본연의 두려움 앞에서도 의연한 지혜의 서사를 들려주기를 기대한다.

늙어간다는 것은 쇠락을 연상케 하니 힘 빠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환하게 웃으며 활동적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혼자가 아니라 동아리(커뮤니티)를 결성하여 지속적으로 뭔가 재미난 일들을 도모하기에 이들을 바라보면 미소가 돈다. 이 정도 즐거움과 활력이라면 생애 전환, 나이들이 젊을 때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두었던 '문화 향유'라는 측면에서 어쩌면 반가울 수도 있겠다.

50+인생학교... 계급장 떼고 현재의 모습 존중

이러한 실버들의 공통점은 사람과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50+인생학교와 그 이후 결성된 커뮤니티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서울의 50+인생학교는 생애 전환을 위해 몇 가지 실천규칙을 제시한다. '민중(나이)과 명함(전직)을 까지 말라'는 것이 그 중 하나다. 나이 들면 위 아래로 10살은 친구 먹는다'는 말이 있다. 인생학교에서는 50+라는 명칭이 의미하듯 (+)숫자의 유연함대로 위아래 모두를 친구로 포용한다. 나이대로 순서를 매기지 않으니 수행할 일이 생기면 모두 골고루 나누어 하게 된다. 그리고 전직을 묻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자신의 과거를 계급장처럼 달고 오지 않는다. 이렇게 현재의 모습을 중시하는 문화는 모두가 수식어를 뺀 한 사람의 실존 그 자체로 서로를 존중하게 한다.

인생학교 교육과정에는 자치회 구성 시간이 있다. 자치회가 생기면 인생학교 졸업 후에도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 50+인생학교는 2022년 11월 현재 총 22기째 이어지고 있고, 각 기수의 자치회와 이를 총망라하는 총동문회가 있다. 회원의 수만도 800명 가까이 된다. 여기서 파생된 커뮤니티 수는 40개가 넘는다. 이들은 최종학력을 '인생학교'라고 말할 정도로 자부심과 연대의식을 느낀다. 어떤 졸업생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 그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 대학을 못 갔다고 한다. 대학생이 되어 학교를 다니는 동년배들을 무척 부러워했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인생학교에 와서 좋았던 점을 이렇게 말한다. "인생학교에 오니 훌륭한 친구가 많이 생기고 재밌게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대학생이 된 것 같아요"라고 프로젝트 방식의 토론 수업과 예술표현, 자치회, 커뮤니티의 자율적 활동 등이 가져온 50+의 사회적 정체성 찾기가 그 행복감의 근원이 된 것 같다.

서울에서 전형이 창출된 50+인생학교는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어 지역마다 특색을 갖춘 인생학교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광주의 '빛고을 인생학교', 안성의 '안성맞춤 인생학교'가 그 예다. 이보다 앞서 부평, 전주, 부산, 춘천 등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형태의 인생



학교가 파생되어 이어지고 있다. 2022년 8월에 1기를 배출한 안성맞춤 인생학교는 그 졸업생들의 우애와 사회적 공헌 활동으로 실버문화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그들은 인생학교 교육과정 중에도 어려운 이웃을 인생학교에 참여하도록 돕는 등 따뜻한 우정을 보여 강의를 하는 나에게 오히려 큰 감동과 배움을 선사해 주었다.

광주 인생학교는 서울 50+인생학교 총동문회에서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 '오픈클럽'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 춘천에서는 '낭만 오벤저스'라 하여 그 지역 실버세대 가운데 문화예술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교육 과정이다. 춘천 지역의 실버문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할지 이분들에게 달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건강,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커뮤니티 형성... 사회에 선한 영향력 전파

실버세대는 어떤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동을 원할까?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 인생학교 졸업 후 주로 커뮤니티 단위로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에 그 커뮤니티들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마음속 깊은 갈망을 알아보고 싶어 조금 찾아보았다.

서울 50+캠퍼스에는 195개의 커뮤니티가 있고, 그 가운데 50+인생학교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커뮤니티는 40개 남짓하다. 장르는 음악, 미술, 연극, 건강 걷기, 답사 등 예술과 체육, 글쓰기 등으로 갖가지 활동을 망라하고 있다. 이 커뮤니티들은 대체로 초기에는 가벼운 주제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부의 팀워크를 다지는 시기를 보낸다. 그 후 커뮤니티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개 사회공헌을 모색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아가는 흐름인 것 같다. 일례로 2018년 6월에 생긴 낭독극 커뮤니티 '막독극'은 월 2회 격주로 한번도 거르지 않고 모인다. 이들은 낭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 관람, 낭독 오디오북을 만들기도 한다. 낭독 오디오 내레이터 활동으로 각종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코로나19 시기라 모이기도 어려웠던 시기에 난국을 정면으로 뚫고 나가는 이들의 활동은 매우 고무적이다. 우선 서로 좋아서 자주 만났던 것이 이 커뮤니티의 발전 비결이라고 한다. 실버세대 커뮤니티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조직을 만드는 힘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오래도록 함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다.

서울 50+인생학교 출신들로 이루어진 커뮤니티 중에는 특이한 이름들이 많다. 재미있는 이름만큼 활동도 창의적이고 유쾌하다. '막독극(막걸리 마시고 낭독극하기)', '날꽃밴드(날아가 꽃중년 밴드)'가 있고, 이 두 커뮤니티가 함께 결합해서 음악과 낭독극을 결합해 새로운 단체를 성립한 '공갈단(공연을 갈망하는 단체)'도 예로 들 수 있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 '오픈클럽'은 학습 공동체 '오도독'을 계기로 결성된 것이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두두 협동조합'이다. 두두 협동조합은 2017년 서울 50+인생학교 졸업과 동시에 커뮤니티를 시작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전시킨 케이스다. 한 동안 커뮤니티에서 탐구해온 사회적 경제의 지식과 의미를 적용하여 '탐방으로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 초읽기'라는 주제로 50+ 대상 강좌를 개설하는 등 멋진 선례를 남기고 있다. 이들에게는 3특의 규칙이 있다. '책독(사회적 경제 이해를 위해 책 세 권 읽고 토론하기), 듣독(읽고 이해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서 듣기), 감독(현장을 방문해 몸으로 느끼기)'이 그것이다. 두두도 처음에는 즐겁게 놀며 친구간의 우정을 쌓다가 점차 사회공헌과 선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단체다.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의 조건은 '참여와 '평등'

이처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실버세대의 커뮤니티들에게는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뭔가 다른 비결이 있을 것 같았다. 커뮤니티를 이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비결을 알려 달라 하니 한 마디로, “규칙을 세우고 지켜야 합니다”라고 답한다. 실버세대 커뮤니티들의 규칙은 어떤 것이 있을까? 서울 50+인생학교 이후 결성된 몇몇 커뮤니티들의 규칙을 소개해본다.

▲ 한 사람이 대화를 독점하지 않는다. ▲ 뒤풀이 비용은 1/n(만원의 행복)을 원칙으로 한다.(단, 자발적으로 쓴다고 하면 말리지는 말고 격하게 박수친다. ^^) ▲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최대 기여는 '참석'과 '참여'다. 매년 송년회 때 정모 최대 참석자를 우수 회원으로 선정 시상한다.(상품 : 커피쿠폰) ▲ 회장과 총무는 봉사정신을 갖고 솔선수범한다. ▲ 총무는 제반 행정실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가급적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고 문서작업이 가능한 사람이 맡는다. ▲ 커뮤니티의 다양한 행사와 모임에 회원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고르게 역할을 맡는다.(예 : 낭독 운동자료 번갈아 준비) ▲ 번개 모임 등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수시로 갖는다.(예 : 낭독극 공연, 단체관극) ▲ 50+재단과 캠퍼스의 커뮤니티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커뮤니티의 위상과 지명도를 높여 회원들이 커뮤니티 활동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도록 한다.

스스로 낮춰 조연(助演)됨으로써 즐거움 찾아

실버들이 커뮤니티 활동에서 제일 바라는 것은 즐거움이다. 나이 들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고립감이라는데 그 고립과 고독 대신 우정과 연대감을 원한다. 이러한 정서적 행복감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고 물으니 '첫째가 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들을 수 있는 자세'라고 답한다. 조화롭게 함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연의 위치에 서고, 타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버세대는 대부분 어떤 조직에서 지휘를 해온 경력자들이다. 가정주부로만 살아왔다 해도 살림살이로는 9단이다. 그래서 실버세대는 조연이 되어 뒤에서 보조해 주는 역할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주연이 되려 한다. 그러나 이

제는 아름다운 조화를 위해 주연되기를 자제하고 조연으로서 느긋하게 숨을 고르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다.

조연되기는 실버세대가 지혜로운 서사를 지닌 선배시민으로서 그 삶의 모습과 이야기로 우리 사회의 문화적 자산이 되어주는 길이다. 실버세대의 커뮤니티는 힘 있는 조연의 역할을 연습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으로 즐거움을 찾다 보면 지혜로운 서사는 자연스럽게 봉사 활동으로 이어진다. 사회적 효능감이 주는 보람이 즐거움 중에서도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것이다. 거리에 화단을 만들어주는 커뮤니티 '드림 가드닝'은 곳곳에 꽃을 심어주는 활동으로 봉사한다. 안성의 '화초사랑'은 예쁘게 화분을 만들어 배달 활동을 하는 커뮤니티이며, 서울 50+ 북부 캠퍼스에는 부모 없는 청소년과 멘토 - 멘티 관계를 맺고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지켜봐주는 커뮤니티도 있다. 서울 50+ 남부 캠퍼스에서 올가을 새로 결성된 커뮤니티는 '힐링극단, 카스테라'이다. 이들은 '50+연극과 예술로 소통역량 기르기'라는 강좌 이후 관객과 소통하는 연극의 매력을 느끼고 이 활동을 이어가고자 만들었다. 이들은 관객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즉흥극으로 표현하는 '플레이 백(Play back)' 공연의 형식으로 수업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관객으로 참여했던 청년의 이야기를 즉흥으로 표현하였다. 진심으로 표현하는 즉흥연기가 너무도 멋졌다. 청년과 실버가 함께 공감하며 눈물로 서로의 마음에 위로와 힘을 주는 장면은 감동 그 자체였다. 세대를 잇는 이 감동을 오래 간직하고자 그 의미를 커뮤니티 활동으로 이어가길 희망했다. 이들은 올겨울이 가기 전 커뮤니티의 첫 행사로 '리어왕 이야기'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예술이란 삶과 유리되지 않는 시선에서 비롯된 열정임을 깨닫게 한다. 이들이 하는 연극은 다름 아닌 지혜의 서사, 선배시민의 따스한 시선을 실천하는 몸의 언어인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멋진 노후의 삶을 꿈꾼다. 종종 다큐멘터리 방송을 보면 귀촌을 한 노부부가 고즈넉한 전원주택을 짓고 느긋하게 사는 모습이 나온다. 참 멋있지만 어쩐지 나와는 거리가 먼 꿈 같은 이야기 같다. 도시의 회색빛 콘크리트 아파트라도 내가 사는 동네에서 좋아하는 친구들과 예술을 향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가끔은 가까운 극장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하는 연극을 하는, 일상의 예술이 '멋'으로 쌓여 만들어지는 실버의 삶을 꿈꾼다. 그런데 그 삶은 이제 꿈이 아니라 곳곳에서 피어나는 현재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 실버의 현재가 우리 사회의 미래, 나침반이 되어 가치를 바란다. '힐링극단, 카스테라'처럼.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구민정 교수

나는 액티브 시니어? 뉴 시니어시대가 왔다

박영빈



60대를 위한 경로당은 없다? 모르긴 몰라도 60대가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해 경로당을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노인 대접받기를 원하는 이는 드물 것이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60대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며, 정부도 현재 65세인 법적 노인 연령을 상향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노인과 젊은이의 가장 큰 차이는 활동성이다.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것은 역으로 그만큼 활동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활동적인 시니어를 상징하는 단어가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다. 액티브 시니어란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갖고 건강하고 적극적으로 은퇴 생활을 하는 50세 이상 시니어를 일컫는다. 이들은 경제적인 구매력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소비를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에도 적극적이다. 그래서 '도전하는 젊은 노인'이라는 의미로 율드(YOLD; Young old)라 칭하기도 한다. 나이는 노인이되, 라이프스타일은 젊은이다. 지난 세대 노인들이 가족 중심이었다면, 액티브 시니어는 여가생활이나 자기계발 등 주체적인 삶을 추구한다.

문화센터와 같은 지역 교육 기관들은 이 같은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건강과 관련된 댄스나 무용을 비롯해 노래·악기·미술 등 예술분야, 인문학이나 고전, 서예 등 교양분야, 바리스타나 휴대폰 사진 찍기 등 다양하다. 달서가족문화센터는 시니어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 문화배움터>를 올해 처음 선보였다. 특정 세대만의 수업을 개설하여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유대관계를 돕고자 하였다.

좋아하는 과목은 비용과 거리 따지지 않아... 커뮤니티로 친목 도모

액티브 시니어들의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돈과 시간은 기꺼이 투자한다는 점이다. 원하는 강좌가 개설되면 설령 거리가 좀 멀어도 기꺼이 감수해 수강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은 수강료를 더 지불하겠다며 수업시간을 늘려달라고 건의하기도



한다. 문화센터 등에서 배움을 통해 즐거움을 느낀 이들은 자기에게 맞는 새로운 과목이 개설되는지를 눈여겨 살핀다. 시니어들의 최대 관심사는 건강이다. 때문에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항상 인기가 좋다. 또 개인차가 있지만 악기연주 등 음악을 배우는 것도 선호한다. 나이 들어 건강을 챙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자기 몸을 스스로 챙김으로써 배우자나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대부분 1960~70년대 어린 시절을 보냈던 5060세대는 특별히 음악을 전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악기를 배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이가 들어 악기 하나 정도 취미로 연주하고 싶다는 바람은 어쩌면 어린 시절의 꿈일지도 모른다. 시니어들은 대체로 분야를 떠나서 처음 배우는데 지식을 많이 요하지 않으면서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시니어 문화배움터 프로그램 중 하나인 <신나는 우쿨렐레> 수업은 지난 11월 6회 차 수업을 끝으로 종강을 맞았다. 수업을 마친 수강생들이 사무실을 찾아 다음 학기 수업이 없음을 아쉬움을 표했다. 시니어 문화배움터는 4~6주 정도의 단기과정으로 개설하고, 수요와 만족도에 따라 내년 봄에 정규편성할 계획이었다. 때문에 내년 봄까지는 수업이 없다. 전후사정을 확인한 수강생들은 내년 봄에 수업이 개설될 것을 신신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연습 공간을 구해 커뮤니티 형태로 모임을 이어갈 계획도 내비쳤다.

배움의 의지, 디지털 기기를 극복하다

달서가족문화센터는 올해 8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프로그램 신청 방법을 방문과 전화 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전환했다. 센터 주 이용객이 30~40대 주부들이라보니 스마트 시대에 센터가 뒤쳐진다는 민원이 많았던 것. 컴퓨터와 디지털기기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겐 편리한 온라인 수강신청은 시니어들에게는 오히려 또 다른 문턱으로 작용한다. 이번 가을학기에 개설한 시니어 문화배움터 신청자들의 신청 경로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은 사무실에 방문해 직원들로부터 온라인 접수 방법을 익혔다. 나머지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나이가 들면서 덩달아 늙어간다. 인간의 숙명이다. 하지만 늙어감의 과정과 모습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그저 뒷방 늙은이가 되어가고, 누군가는 배움을 통해 스스로를 채우고 주변과 어울려 즐기면서 살아간다. 어떤 것이 건강한 노년의 삶인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달서가족문화센터
박영빈 운영지원팀장

제4차 생각나눔포럼

오징어게임은 우리의 어릴 적 골목이나 배꼽마당 놀이도 세계적인 콘텐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이 보유하지 못한 독특한 문화는 그 자체로 이미 차별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콘텐츠화 하느냐다. 달서문화재단은 지난 11월 11일 달서아트센터 와룡홀에서 우리 지역이 가진 유·무형의 자산을 콘텐츠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역 스토리 콘텐츠의 개발과 확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제4차 생각나눔포럼을 진행했다.

지역 스토리 콘텐츠의 개발과 확장



선옥현

사단법인 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왜 지역 콘텐츠인가

지역이 가진 특색이야말로 지역이 가진 최고의 자산이다. 지역이 가진 역사, 지형, 사건, 특산물, 유물 등은 타 지역이 흉내 낼 수 없는 고유한 지역의 자산이다. 지역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것은 지역이 가진 문화의 차이를 드러내고 장점을 부각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지역 경쟁력은 지역이 가진 문화적 콘텐츠의 규모와 파급력에 달려 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 지역 콘텐츠의 개발은 획일화에 대한 거부이며, 각 지역마다 독특한 지역 문화가 활성화될 경우 국가 전체 문화의 격이 올라가는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가까운 일본에는 다양한 종류의 청주가 있다. 예전에 우리나라 또한 각 가정에서 막걸리를 담가 먹었고, 집집마다 막걸리 맛이 달랐다고 한다. 사적 제조가 금지된 후 막걸리는 획일화되고 독특한 맛도 몇몇 종류로 급감하였을 것이다. 최근에 다시 규제가 풀리며 살아나고 있으니 우리나라 막걸리도 분명 명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지역 콘텐츠는 멀리서 찾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오래 함께하고 있는 보물과도 같다.

지역 콘텐츠 개발의 어려움

지역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과 지원 주체, 지역 콘텐츠 연구자, 작가, 텍스트 또는 아이디어를 극화 또는 상품화할 수 있는 실행 주체 등 4가지가 필요하다. 지원 주체는 대부분 지자체가 해당된다. 그런데 지자체의 지원 방식은 대부분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결과물을 보여줘야 한다. 그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다음에 중단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콘텐츠 개발은 시간을 두고 실행과 검증, 재실행을 반복해야 하는 지난한 작업인 만큼 행정이 의지를 갖고 밀어붙여야 하는 미션이라고 할 수 있다.

향토 연구자는 현재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지원 주체는 그 연구자들을 작가와 연결시켜야 한다. 연구자와 작가는 영역이 다르며 작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연구자가 1인 2역으로 창작까지 할 수도 없다. 또한 작가가 향토를 공부한들 연구자의 오랜 연구 실적을 따라잡을 수도 없다. 지역 콘텐츠 작업의 연구자와 작가 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한 이유다.

The 4th thoughts-sharing forums

실례로 통영과 부산, 대전, 안산문화재단 등에서는 꾸준히 지역 콘텐츠 희곡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 쉽지 않다. 작가가 평상시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소재를 공모를 위해 공부하고 극화한다는 것은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만약에 모험처럼 그렇게 공부해서 탈고를 했는데 당선되지 못하면 그 작품은 사장되기 쉽다. 그래서 강원도립극단은 완성된 희곡이 아니라 시놉시스 공모를 통해 지역 콘텐츠 공연을 만들기도 했다. 그만큼 그 지역의 작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지역색을 잘 살린 작품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보통 실행 주체는 지역문화재단이 되기도 하고 지역 공립 극단이 되기도 한다. 지원 주체가 실행 주체까지 되기는 쉽지 않다. 행정과 콘텐츠 개발 과업은 다른 영역이다. 지원 주체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하고, 실행 주체는 지원 주체의 목적을 잘 알고 그에 맞추어 지역 콘텐츠 개발 계획과 예산 계획도 현실적으로 세워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실행 주체는 멀리 보고 지속적인 창조와 검증, 재창조를 이어가야 한다.

전북과 강원도의 사례

국내 지역 콘텐츠 개발 사례들을 살펴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속적이어야 성과물을 낼 수 있는 작업임을 알 수 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2013년 말 전북관광브랜드공연이란 이름을 걸고 뮤지컬 '춘향'을 발표했다. 그리고 해마다 수정을 거쳐 레퍼토리를 위해 노력했다. 지역 예술인과 재단 사이에 우여곡절도 있었다. 춘향에 이어 '홍도1589'를 창작해 몇 년을 이어갔고 2021년에는 '몽현 서동의 꽃'이라는 판소리 댄스컬 장르를 걸고 상설 공연을 진행하는 등 국내에서는 비교적 꾸준히 노력 중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또한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브랜드 공연 신개념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리'를 창작 발표하여 오일장이 열리는 때마다 상설 공연을 진행하고 있고, 춘천 및 타 지역 순회 과정을 거쳐 지난 5월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수도권 관객에 선보이기도 했다. 그 공연은 초연 이후 크게 세 번 정도의 변신 과정을 겪었다. 지역 콘텐츠를 발굴해 창조하고 알리고 정착하기까지 지난한 노력이 필요함을 두 재단의 사례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초연에 명작 없다... 기다리며 완성도 높이는 과정 필요

이상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지역 콘텐츠의 발굴과 제작, 레퍼토리의 정착은 결코 쉬운 미션은 아니다. 문제는 그런 요원한 과제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과학적인 개발 과정이라고 본다. 또 검증과 지속적인 투자 계획도 필수다. 가요와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지금, 한국의 문화는 곧 지역의 문화며 어쩌면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지원 주체와 개발 주체가 하나가 돼 믿음과 소명을 가지고 과제를 꾸준히 수행하는 것만이 희망일 것이다. 초연에 명작 없다.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시 업그레이드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결국은 창작자들 지원자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애정과 희망이 없다면 지역 콘텐츠 개발이라는 것은 요원하다. 셰익스피어나 체호프 같은 세계의 유명 작품들은 오랜 기간을 거쳐서 완성된 작품들이다. 때문에 지역 콘텐츠의 개발은 지자체와 극단 등 실행 주체들의 의지가 꼭 수반되어야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김건표
대경대학교 교수

지역 콘텐츠 스토리의 성과와 가능성

대구 공연예술 사례를 중심으로

2003년 이후 소재와 원작의 다변화

지역 콘텐츠 스토리는 과거 역사적인 사실이나 인물에서 생활의 풍경과 소시민, 골목 등으로 소재가 다양해졌고, 작품 면에서도 국내외 유명 작가의 작품을 탈피해 대구 출신의 작가들 작품이 많아졌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3년 이전과 이후 스토리 콘텐츠가 달라졌다. 2003년 이전에는 대구를 대표하는 2·28민주의거 등 어떤 역사적인 사실과 인물들을 소환해서 공연되는 사례들이 좀 있었다. 하나의 공연적인 성격보다는 축제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역사를 기반으로 한 나열 정도였다면, 2003년 대구시립극단의 이상헌 감독 체제가 되면서 확 바뀌기 시작했다. 역사 이야기에서 근대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로 넘어간다. 2003년도에 공연했던 '동화세탁소(안희철 작)'는 도원동 자갈마당 옆 세탁소를 사랑하는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특별한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역의 소시민들이 살아가는 애환과 정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갈등들을 생활 풍경으로 붙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동화세탁소'를 기점으로 지역 스토리의 소재가 '역사 속에서 대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다.

대구문화재단 설립과 대명공연거리 조성 후광효과 특색

2008년부터 2015년까지는 지역 소재 콘텐츠들이 대폭 증가했다. 지역 작가의 스토리텔링들을 기반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출자 중심의 하드웨어가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대구문화재단 설립과 함께 지원체계가 구축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 대명공연거리가 형성되고, 소극장 특구를 통한 소극장 중심의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생계형 작가들이 늘어났고, 극단도 활성화됐다. 극단도 기존에 갖고 있던 번역극 중심을 벗어나서 다양한 지역 소재를 바탕으로 한 창작극을 무대에 올렸다. 북성로나 서문시장을 소재로 한 이야기 등 작품들이 쏟아졌고, 이 작품들 안에는 지역이라는 배경 외에도 이미 생활 속으로 들어온 그러한 환경들이 조성됐다. 그것이 다시 뮤지컬로 넘어가면서 지역 소재가 안정화되고 창작의 붐이 일어났다. 대구 지역 소재가 활발했던 때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안희철 작가, 최수환 감독, 김하나 작가 등이다. 이들은 지역 소재를 기반으로 작가적 상상과 미학적인 연출로 발전된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소극장 특구인 대명공연거리 조성은 지역 콘텐츠 개발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지원을 통해 작가들이 작품 쓰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배우와 연출자 등이 직접 글을 썼고 소재는 그만큼 다양해졌다. 지자체의 지원과 대구문화재단의 지역 특성화 콘텐츠 육성사업,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 소재를 유도했고, 뮤지컬, 연극, 오페라 등 탈 장르화가 이어지고 있다.



강용준
제주문화관 관장

제주 문화 콘텐츠

개발의 조건

제주 문화를 알아야 제주적인 소재 쓸 수 있어

글로벌리즘은 글로벌리즘과 로컬리즘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세우기 위한 대안이었다. 여기에서 '가장 향토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생겨났다. 향토적이라는 의미는 다양성 속에 빛나는 독특한 개성이다. 그 지역만이 갖는 문화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방인의 눈으로 보면 새롭고 신비롭고 독특하기 때문에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런데 이것을 함부로 콘텐츠화했을 때는 상당히 변질되고 왜곡된 작품들을 생산하게 된다. 그 지역을 모르면 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없고,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쓰기 힘들다. 설령 쓴다고 해도 왜곡이 되거나 오류를 범하게 된다. 실례로 뮤지컬 '백록담'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극작가가 쓴 작품이다. 원래 설문대할망신화를 모티브로 해서 의뢰를 했는데 작가가 설문대할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조각난 몇 개의 에피소드뿐이었다. 그래서 작가가 못 쓰겠으니까 소재를 바꿔달라고 요청했고, 흥연애와 조종철의 사랑 이야기로 바꿨는데 그 내용은 제주적인 내용이 아니었다.

또 다른 사례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CEO라고 불리는 여성 거상 김만덕을 소재로 한 뮤지컬 '만덕'을 들 수 있다. 내용 중 만덕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자신은 '굴차를 팔면서 여생을 보내겠다'는 대사가 나온다. 그런데 당시 굴은 제주에서 진상품이었고, 임금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것이었다. 굴을 키우는 사람들은 개수가 부족하면 곤장을 맞았다. 그렇게 관리가 엄격한 귀한 굴을 무슨 수로 가져가 차로 판매하겠다는 말인가. 당시의 실정을 모르는 데서 오는 왜곡인 경우다. 이외에도 역사적 사실이나 제주의 고유한 문화에 대한 무지에서 왜곡된 작품이 여럿 있다.

지역 소재를 작품화할 경우 역사와 문화 연구가 선행돼야

이처럼 제주 문화를 모르고 작품을 쓰면 꼭 이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지역 문화를 작품화할 때는 그 지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지금도 제주에서는 제주 4.3평화문학상과 서귀포문학상 등 여러 상이 있다. 전국 곳곳에서 응모를 하지만 왜곡과 변질이 있을 경우에는 탈락시킨다.

제주 문화는 여러 가지 특색이 있다. 제주는 독립주의적인, 본토와는 다른 고유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다. 유배(流配)문화, 유리(遊離)문화, 해양문화와 변방문화 등 태생적, 지리적, 역사적으로 독특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제주 문화를 콘텐츠화할 경우 반드시 제주의 특색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양수근
작가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 상주단체 콘텐츠 개발 연극 <나두야 간다> 사례 지역 콘텐츠 개발

2020년 봄,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극단 '까치놀이'가 광주시 서구문화센터의 상주단체가 되면서 용아 박용철 시인의 일대기를 소재로 작품 의뢰가 왔다. 막상 작업 의뢰를 받고 나니 어깨가 무거웠다. 첫째는 극단 까치놀이의 명성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되었고, 둘째는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 공연장 상주단체에 좋은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는 점 때문이었다. 서른넷의 짧은 생을 살다간 시인 박용철(1904~1938년)에 대한 자료 조사를 했다. 전라남도 광산군(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에서 만석꾼의 장남으로 태어난 박용철은 오직 순수문학으로 일제에 저항한 시대의 선각자였다. 그가 없었더라면 '모란이 피기까지'의 김영랑, '향수'의 정지용과 유치진의 희곡 '토막'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사비를 털어 견지동(조계사와 인사동 사이)에 인쇄소 시문학사를 설립하고 『시문학』, 『문예월간』, 『문학』, 『극예술』 잡지를 만들었다. 폐병이 엄습한 죽음 직전까지도 그는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일본 유학 중 잠시 귀국했을 때 관동대지진이 일어나 일본으로 가지 않고 방향을 했다. 당시 미두에 투자해 큰돈을 날리기도 했다. 연극은 용철이 돈을 잃고 크게 깨달음을 얻는다는 내용으로 설정해 작업에 들어갔다.

연극에 패션쇼 접목, 의뢰자와 함께 시놉시스 개발

연출자와 함께 일대기의 특정 시점을 스토리로 구성하되, 1930년대 패션쇼를 극 중간중간에 접목하기로 했다. 국내 최초의 패션쇼를 접목한 연극 <나두야 간다>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일반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특정 소재가 정해진 콘텐츠를 개발할 때는 시놉시스 단계에서 충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의뢰인의 의견에만 치우치다 보면 작가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작가 혼자만의 의견으로 작업을 할 경우 의뢰인의 의도가 퇴색되면서 중국에는 작품 전체가 뒤엎어질 수 있다. 때문에 시놉시스 단계에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완성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

지역 콘텐츠 개발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

연극 <나두야 간다>는 2020년 12월 첫 공연 이후 2차 공연부터는 시에 노래를 접목하여 음악적 요소를 추가해 업그레이드시켰다. <나두야 간다>는 광주시 서구문화센터 공연장 상주단체 연극으로 개발되었지만 실제로는 박용철의 고향 광산구를 중심으로 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행정의 따라줘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토론회

1부 주제 발표에 이어 2부에서는 이은경 연극평론가, 흥원기 작가, 김숙중 작가, 브리즈뮤지컬컴퍼니 손현진 대표 등 패널과 함께 대한민국 문화예술인 포럼 남정숙 회장이 좌장을 맡아 자유토론을 이어갔다.

이은경 연극평론가

주제가 지역 스토리 콘텐츠인데 지역 콘텐츠로 혼동된다. 여기서 스토리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 실존적 인물이나 자연 풍광 등 문화적 자원을 기본적인 재료로 해서 쓴 것이 이제 지역 스토리 콘텐츠라고 한다. 지역 콘텐츠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김건표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이다. 『동화세탁소』와 같은 작품들을 꼭 대구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냥 다른 지역의 어떤 세탁소 이름을 붙여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이 지역 스토리 콘텐츠가 맞는 것인지, 단지 시공간이 설정되어 있다는 의미로 지역 스토리 콘텐츠인지 궁금하다.

또 하나 강용준 관장께서 작가들이 지역 스토리 콘텐츠를 다룰 적에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잘 리서치하고

온전히 이해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오해하면 지역 콘텐츠는 지역 사람밖에 못한다는 의미로 확장될 위험성이 느껴진다.

김건표 교수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런데 어떤 지역 소재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고 사실상 소재 자체가 지역성에 기반으로 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지역 소재라는 것은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와 인물 등 다양한 콘텐츠가 배경과 기반이 되는 콘텐츠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미학성이나 스토리의 한계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보편적인 생활이나 현대의 풍경으로 넘어왔던 것이 동화세탁소라는 것이다. 그런데 동화세탁소가 우리 이야기냐, 남의 이야기냐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동화세탁소는 도원동 주민들의 얘기고 그들 삶의 풍경들을 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현대적인 지역의 생활 풍경도 하나의 지역 소재로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다. 분명한 것은 지역 소재는 지역의 인물과 역사성, 배경이 근간되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 것 같다.

강용준 관장

인터넷이 발달한 이후로 지역 소재는 이제 더 이상 지역 작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소재들이 영화나 드라마가 돼 관객들이나 시청자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 사람들의 생애나 의식 등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아주 무궁무진한 연구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례로 제주에는 ‘숨비소리’라는 단어가 있다. 해녀들이 물속에서 2~3분간 숨을 참다가 나와서 내뿜는 소리다. 모 소설에서 숨비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차용한 것을 봤다. 이렇듯 표피적인 것만으로 작품을 써서는 안 되고, 정말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진지하게 그 인물들을 탐구하는 진정성이 있을 때 작품의 완성도도 높아진다. 그것은 지역 작가만이 아니라 타 지역 작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홍원기 작가

문화예술 행정이 분권화되면서 지자체에서 주문·생산·보급·공연하는 콘텐츠들이 대부분 지역 안에서만 머문다는 단점이 생겼다. 그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함이지만, 예산과 공력을 들여 만든 콘텐츠들이 지역 주민들만 한 번 보고 끝나는 일회성에 머문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 지역에서 만든 콘텐츠를 다른 지역과 교류해 교차 공연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 지역 문화예술 행정의 폐쇄성은 심각한 문제이다. 지역의 문화예술 부서나 문화재단 등에서 소설이나 희곡 같은 스토리텔링을 공모할 때 붙이는 단서가 있다. 꼭 그 지역과 연관된 소재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지역의 것을 찾아내 지역만의 문화 콘텐츠를 발화시키는 것은 마땅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자기 지역만의 인물로 고집 피우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들만의 독식 자체가 아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지역에서 특화되는 것을 찾아서 하되 다른 지역과도 교류하면 좋겠다. 더 나아가 극작가 협회를 통해 스토리를 콘텐츠로 변환하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좌장

작가의 주체성이 중요하고 실행 주체 조직과 지원 주체의 역

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스토리 콘텐츠의 주체성도 중요하지만 확장성과 공감성, 변환의 미학성도 중요하다는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다.

김숙중 작가

어떻게 작가를 감동시키면 좋은 창작품이 나오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재벌의 사랑 이야기만 다루는 김은숙 작가가 미스터 션샤인을 썼다. 미스터 션샤인을 쓸 수 있었던 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작가들한테 끊임없이 교육을 했기 때문이다. 드라마 작가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과거 독립군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배우는 과정에서 김은숙 작가가 감동하여 드라마를 쓰게 됐다고 한다. 작가가 그 지역의 이야기나 콘텐츠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나 문화재단 등 지원 주체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선옥현 이사장

허난설헌 때도 그랬고,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 10권의 책보다 한 사람과의 인터뷰가 더 나올 때가 있다. 장의사와 관련된 글을 쓴다면 장의에 관한 책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30~40년 장의사를 하신 분하고 마주앉아서 2시간만 얘기 나누면 훗 하고 들어오는 것이 있다. 향토사학자들은 공부는 열심히 하셨는데 그 성과를 펼칠 곳이 많지 않다. 이런 분들하고 우리 작가들이 잘 연결이 되면 그 분들의 지식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제작 주체들이 연결을 잘 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브리즈뮤지컬컴퍼니 손현진 대표

대구는 우리 예술인들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공연 도시라고 생각한다. 지자체의 문화정책과 육성 사업이 활발하고, 문화재단이나 창작 지원 제도들이 지역 예술인들한테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신력 있는 브랜드 콘텐츠가 나오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공모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제작된 콘텐츠는 상업적으로

활용이 안 된다. 또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기관의 특성상 공익이 우선돼야 하고, 사회적 경제 가치가 함유돼야 한다. 그렇다보니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공연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유통하기가 어려운 지역 시장에서는 저희와 같은 실행 주체들이 생계를 위해서 약간 짜맞추기식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일회성 지원 사업의 악순환을 타파하기 위해서 김숙중 작가님 의견처럼 뭔가 지자체가 주체가 돼서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홍원기 작가님의 의견처럼 확장성 있는 지역 스토리 개발과 개발된 콘텐츠를 타 지역과 공유하는 부분도 필요해 보인다.

좌장석에 계신 분들

관객 속에 있는 분들 중 두 분께 질문 기회를 드리겠다.

시민

유명작가의 희곡이나 대본은 서점에서 볼 수 있는데, 지역의

연극 대본이나 뮤지컬 대본은 구하기가 어렵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김건표 교수

발제자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떠올랐던 것이 지역 스토리 교류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예를 들면, 대구에서 소극장 열전처럼 연극을 모으듯이, 스토리를 모으는 낭독회나 토론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좌장

이상 지역 스토리 콘텐츠 개발과 확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마치고 있다.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지역 콘텐츠를 개발해 보신 분들의 성공과 실패 이유를 직접 들음으로써 유익한 시간이 됐다. 여러 발표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콘텐츠 개발은 단시간에 할 수 없으며, 개발 후에도 단계별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속성이 뒷받침돼야 함을 알 수 있었다.



with Dalseo

.....

달서의

문화·人 이야기



문화의 맥(脈)이 흐르는 이야기와
문화 향유의 공간,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화제의 장소를 담았다.

문화와 예술이 숨 쉬는 숲, 공원(公園)

뉴욕 센트럴 파크와 대구 두류공원

도시를 대표하는 도시공원은 울창한 숲과 잔디밭, 호수나 연못 등 자연시설 외에 각종 체육시설과 미술관, 극장 등 문화시설이 조성돼 있어 공원 자체가 거대한 문화 공간 구실을 한다. 뉴욕을 대표하는 센트럴 파크가 그러하고, 대구의 두류공원 역시 사시사철 문화 이벤트가 펼쳐져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DURYU PARK

현대 도시공원의 시초 센트럴 파크(Central park)

공원(park)의 어원은 고대 서부 게르만어인 파록(parruk)으로 울타리 등의 경계로 둘러싸인 공간을 뜻한다. 울타리 안에는 가축이나 사슴, 말 등을 가두어 두었고 개인 사냥터 구실도 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공원(park)이라는 단어에 '공공(public)'의 의미가 내포된 것은 아니었다. 산업혁명 이후 시민과 공공의 개념이 대두되고 영주나 귀족이 소유하던 사적 공간이 시민에게 공개되면서 공원(公園, public park)이 됐다. 처음부터 공공을 위해 계획된 오늘날의 도시공원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19세기 중엽 뉴욕의 센트럴 파크가 시초로 알려져 있다.

뉴욕시 맨해튼에 있는 센트럴 파크는 해마다 약 2,500만 명 이상이 찾는 뉴욕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다. 공원을 찾는 이들은 미국인 외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상당수다. 영화나 TV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면서 세계인들에게 뉴욕에 가면 꼭 가봐야 하는 must place가 됐다.

원래 공원 부지는 채석장과 돼지농장, 판자촌들이 널려 있던 땅이었다. 1850년 저널리스트인 윌리엄 브라이언트가 <뉴욕 포스트>紙에 공원 건설 캠페인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1853년 처음 공원으로 승인되었으며 1857년 조성이 시작됐다. 이듬해 대중에게 공개됐고, 그 이후 공원 북쪽 끝에 있는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 1876년 완공됐다. 조성 당시 10만 수레의 돌과 흙을 부어 다졌고, 50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 넓이의 정신병원이 필요”

센트럴 파크는 '조경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와 건축가 칼버트 폭스(Calvert Vaux)가 디자인했다. 공원에는 인공 호수와 연못, 여러 개의 산책로, 2개의 아이스링크, 야구장, 야외 음악당, 미술관, 박물관, 동물원, 정원, 야생동물 보호구역, 넓은 자연림 등이 있다.

남북으로 4.1km, 동서로 0.83km, 전체 면적은 3.41km²다. 인근에는 뉴욕시청이 소재하고 있으며 뉴욕에서 가장 변화한 쇼핑 지역인 5번가에 맞닿아 있다. 당시 옴스테드는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 넓이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한다. 오늘날 센트럴 파크는 옴스테드의 철학을 온전히 실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옴스테드 이후 공원에는 미술관과 박물관, 야외 음악당 등 수많은 문화 시설이 들어섰고, 그 문화시설에서 뉴욕시민들은 건강한 오락을 즐기고 있다.



센트럴 파크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 사시사철 문화의 장

센트럴 파크에는
해마다 서머
스테이지를 비롯해
그레이트 힐
재즈콘서트, 센트럴
파크 영화제 등 각종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그대여 내게 말해주 사랑한다고~ 롤린, 롤린, 롤린, 롤린~”
지난 7월 10일 저녁(현지 시각) 센트럴 파크에는 한국어 떼창이 울려 퍼졌다. 4인조 K팝 그룹 브레이브 걸스가 무대에 올라 히트곡 ‘롤린’을 부르자, 수천 명의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 몸을 흔들며 한국어 가사를 일제히 따라 불렀다. 뉴욕시는 해마다 여름이면 센트럴 파크에서 ‘서머 스테이지(Summer stage)’로 불리는 음악 축제를 개최한다. 2017년부터는 K팝 가수들이 출연하는 코리아 가요제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브레이브 걸스와 골든차일드, 미 NBC ‘아메리칸 송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한국계 알렉사 등이 2시간 넘게 화려한 공연을 펼쳤다.

5월부터 8월까지의 센트럴 파크의 델라코테 극장(Delacorte Theatre)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공연하는 셰익스피어 인 더 파크(Shakespeare in the Park)가 열린다. 무료 공연이지만 인기가 많아 입장권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다. 운이 좋으면 야외무대에 올라온 유명 배우들을 볼 수도 있다. 메릴 스트립, 댄젤 워싱턴, 앤 헤서웨이 등이 출연하기도 했다.

여름철 센트럴 파크 숲 속(Great lawn)에서는 뉴욕필하모닉의 무료 공연이 펼쳐진다. Great lawn은 영화 어거스트 러쉬(August Rush)에서 주인공 에반이 어릴 적 헤어졌던 엄마 라일라를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콘서트가 끝나면 불꽃놀이가 뉴욕의 밤하늘을 수놓는다. 센트럴 파크에는 해마다 서머 스테이지를 비롯해 그레이트 힐 재즈콘서트, 나움버그 밴드 셸 콘서트(Naumburg band shell), 셰익스피어 인 더 파크, 센트럴 파크 영화제 등 각종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수요일 저녁
상설공연장은
단체관람을 온
친구들과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로 가득 찬다

문화예술회관 제공



(사)대구포크페스티벌 제공



대구시민의 힐링 공간 두류공원

두류공원은 연간 약 1,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구의 대표적인 공원이다. 1965년 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1977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돼 대구시민의 휴식처로 자리 잡았다. 두류공원은 두류산과 금봉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원으로 이월드 83타워가 들어선 곳은 두류산이고, 문화예술회관 뒷산은 금봉산이다. 두류산은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산이 동글게 펼쳐져 있다고 하여 두리산으로 부르던 것을 지명이 한자화될 때 같은 의미의 주산 또는 두류봉으로 쓰여 오다가 두류산으로 지칭되었다고 한다. 공원 내에는 대구의 명소인 이월드 83타워, 문화예술회관, 야외 음악당, 두류도서관 등 각종 문화시설과 야구장, 다목적 운동장, 수영장 등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과 산책로 등이 조성돼 있다. 이외에도 현진건, 이상화, 백기만 등 대구 출신의 문화인물을 기념하는 인물동산, 2·28기념탑 등 대구의 역사적 자산을 품고 있다. 전체 넓이는 1,653,965㎡(두류공원 1,249,915㎡ / 이월드 404,050㎡).

성당못은 본래 조선 중엽, 채 씨 성을 가진 판서가 살던 집터였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의 국풍(나라에서 지정한 공인 풍수)이 이곳을 지나다가 보니 장차 ‘임금이 태어날 명당’이라 하여 집을 허물고 연못을 만들었다고 한다. 못 둘레에는 600여 m의 데크길로 된 ‘성당못 두리길’이 조성돼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 두류공원은 야구장, 축구장, 수영장, 테니스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산책로, 숲 등으로 이뤄져 대구시민들의 육체와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주요한 장소였다. 1990년 문화예술회관을 시작으로 1992년 83타워, 1995년 이월드, 2000년 코오롱 야외 음악당 등이 속속 들어서면서 운동과 문화, 놀이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공원으로 자리 잡았다.

무료 공연과 축제의 장

7월 두류공원은 대구의 대표적인 축제인 치맥페스티벌로 한바탕 시끌벅적하다. 두류공원 내 야구장 일대에서 5일간 펼쳐지는 축제에서는 치킨과 맥주를 먹으면서 각종 공연과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축제기간 동안 대구시민과 국내외 관광객 약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대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다.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문화예술회관 동편 야외무대에서는 극단, 무용단, 국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시립예술단의 수요일상설공연이 무료로 펼쳐진다. 수요일 저녁 상설공연장은 단체관람을 온 친구들과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로 가득 찬다.

여름의 한가운데 코오롱 야외 음악당에서는 포크페스티벌이 더운 대구의 열기를 식힌다. 코오롱 야외 음악당은 단일 공연장으로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고정 객석 1,080석 외에도, 1만여 평의 넓은 잔디광장에서 최대 2만 7천 명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다. 올해는 <힐링 콘서트>라는 부제를 달고 3년 만에 대면공연이 펼쳐졌다. 여름이 아닌 가을밤에 송창식, 민해경 등의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했다.

이외에도 문화예술회관 전시관에서는 연중 미술과 건축, 사진 등 각종 작품들이 전시되고, 야구장과 다목적 운동장에서는 각종 마라톤대회와 달구벌관동놀이, 어린이큰잔치, 걷기대회, 익스트림 스포츠대회 등 행사와 축제가 펼쳐져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독서모임으로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곳

동네 책방 파이데이아북스, 100여 명 독서모임 활성화



달서구 상인역 e편한세상 아파트 2단지 정문 입구에 있는 북카페 파이데이아북스. 카페에 들어서면 3~4명에서 앉을 수 있는 테이블 2개가 있고, 유리문으로 분리된 안쪽 공간에는 8명이 앉을 수 있는 대형 테이블 하나가 있다. 그런데 꽂혀 있는 책 제목들이 심상치 않다. 어린이용 도서와 몇몇 문학과 교양서적을 제외하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명상록』, 『군주론』 등 서양고전들 일색이다. 차를 마시며 가볍게 읽기에는 책 제목들이 제법 무겁다.

위대한 저서 읽기 모임...

시야는 넓어지고, 자신감도 쑥쑥

이 곳은 김민주 씨와 남편 조성열 씨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파이데이아 아카데미 상인지부로 일반 북카페와는 달리 독서모임으로 유명한 곳이다. '파이데이아(paideia)'는 그리스어로 '교육', '교양'을 의미한다. 파이데이아 아카데미는 '위대한 저서 읽기 프로그램'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교육철학자인 계명대학교 신득렬 교수가 1991년 대구에 설립한 비영리교육기관이다. '위대한 저서 읽기 프로그램'은 미국 시카고대학교 총장이었던 허친스(R. M. Hutchins, 1899~1977년)와 그의 동료 아들러(M. J. Adler, 1902~2001년)가 1940년대부터 대학생과 일반인의 교양교육을 위해 만들어 시행한 것이다.

부부는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03학번 동기다. 결혼 후 책이 좋아 대학 시절 독서모임을 소개했던 신득렬 교수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독서모임을 지도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2017년 3월 카페 문을 열었다. 파이데이아 아카데미는 한국 최초로 위대한 저서의 한국어판을 중심으로 독서토론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팔공산 본부와 전국에 15개 지부가 운영 중이다.

금요일 오전 10시, 위대한 저서 읽기 1년차 모임이 있는 시간이다. 멤버는 모두 6명, 40대 주부들이다. 멤버들이 읽고 있는 책은 '신홍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으로 유명한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였다.

멤버들에게 독서모임이 좋은 점에 대해 물어봤다. 류정숙 씨(46세)는 "모임에 오기 전에는 책을 사서 혼자 읽고는 책장에 꽂아두면 끝이었다. 물론 좋은 책은 남들에게 권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특별히 많은 기억이 남아 있지 않다. 모임을 통해 함께 생각을 공유하다 보니 기억에 남는 것도 많고 읽은 책에 대한 애착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경화 씨(50세)는 "어려운 고전을 혼자 읽었다면 벌써 포기했을 것이다. 그런데 모임을 통해 한 권을 읽고 두 권을 읽으니 성취감이 생겼다. '나도 뭔가를 하면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 백현지 씨(46세)는 "같은 텍스트를 읽어도 사람마다 이해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다. 나와 다른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재미있고 덩달아 시야가 넓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매주 21개 독서모임 100여 명 참가

위대한 저서 읽기 모임은 해마다 1년차를 새로 모집하고 1년차 이상은 그 모임이 회차를 더해 계속 이어진다. 2017년 처

음 시작한 3개 모임의 10여 명 멤버들은 6년차를 맞아 지금은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고 있다.

현재 카페에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위대한 저서 읽기 외에도 주니어(초등 고학년) 고전 읽기, 청소년을 위한 고전 읽기, 소설 읽기, 비문학 읽기, 성인 대상 세계문학 등 21개 독서모임에 약 100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 개의 모임에는 평균 4~5명씩, 모임은 1주일에 한 번씩 갖는다. 초등학교생과 청소년의 경우 1시간씩, 성인의 경우 대략 2시간씩 갖는다. 모임 때마다 제공되는 음료를 포함한 월 회비가 5만 원이다. 대상 도서는 개인이 직접 구매한다. 독서모임은 해마다 1년차 모임을 새로 개설해 회원을 모집하며, 기존에 운영 중인 모임에 빈 자리가 있을 경우 참여할 수 있다.

독서모임의 장점에 대해 김민주 씨는 "회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혼자 읽을 때보다 더 풍부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미처 내가 생각지 못한 다른 사람의 생각이 더해져 더 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라며, "꾸준하게 모임에 참여할 경우 생각의 근육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 문의 010-9370-3619



Place

마을문화센터 솜씨

‘솜씨’로 바른 먹거리 전파 이곡동 마을문화센터 솜씨협동조합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협동조합

솜씨의 주 사업은 학교나 문화센터, 복지관 등에서의 교육이다. 또 다문화 가정 주부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통요리와 소풍에 필수인 김밥, 생일상 차리기, 명절음식 등 한식요리수업과 바른 식생활 교육을 통해 한국의 바른 식생활문화를 전파하는 데에도 솜씨를 부리고 있다.

황민정 대표는 “대구시에서 이주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달서구다”며 “이들이 한식과 한국의 바른 식문화를 배움으로써 하루 속히 한국에 동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문화가정 대상의 수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5~10명 정도로만 수업을 진행할 만한 공간을 구했다. 어차피 대부분의 수업은 학교나 복지관 등 외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 되고자 했다. 특히 문화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솜씨를 공유해 건강한 이웃문화를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솜씨의 클래스룸은 비교적 아담하다. 물론 이곳에는 어른들만 오는 것은 아니다. 방학 때

달서구 이곡동 이곡중학교 인근 다세대주택 1층, 마을문화센터 솜씨협동조합(달서구 선원로37길 42, 1층). 이름에서 풍기듯이 솜씨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요리와 떡, 막걸리, 공예, 아로마 테라피 등 전문 분야도 다양한 5명의 주부들이 그 주인공이다. 각자 내로라하는 솜씨를 가진 이들이 한데 모이게 된 것은 지난 2015년. 황민정 대표가 1년 넘게 제안과 설득을 거듭한 끝에 달서구에 거주하는 5명이 의기투합해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는 온종일 아이들이 북적댄다. 어른들에게는 사랑방, 아이들에게는 놀이터 역할을 해왔고 지금은 수업이 없는 날에도 아이들이 오가며 들어와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됐다.

지난해부터는 마을주민들 외에 타지에서 온 방문객들이 늘었다.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거나 설립 1~2년된 초보 협동조합에서 운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온다. 도움을 청하는 초보 협동조합들이 시행착오를 덜 겪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대한 도와주려고 한다. 또 대구뿐만 아니라 타 지역 지자체나 단체에서 견학을 오기도 한다. 어느 한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가 모인 협동조합은 흔치 않은 모델이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협동조합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 두며 레시피 개발 등 내공 쌓는 데 중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대면 수업을 할 수가 없었다. 꼭 필요한 몇 개의 온라인 강좌 외에는 솜씨를 내세울 데가 없었다. 주 수입원인 강좌가 끊기니 수입은 일천했고, 조합원들 스스로가 자기 몫을 양보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했던가. 훗날을 위해 레시피를 개발하고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직접 팔 수 있는 것을 고민한 끝에 두부나 고추장 등을 만드는 키트를 제작해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판매했다. 유치원, 복지관 등에서 만들기 체험 수업을 목적으로 구매했고, 일반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손쉽게 체험해보고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제법 팔렸다. 올해 들어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여기저기서 수업 요청이 왔고, 그동안 개발했던 레시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식생활교육센터 건립해 바른 먹거리 교육이 목표

솜씨의 최종 목표는 식생활교육센터를 건립해 바른 식생활문화를 전파하는 것이다. 특히 아이들이 우리의 먹거리를 제대로 알고 섭취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솜씨를 방문하는 아이들이나 학교 강좌에 나가서 만난 아이들 중에는 콩이 마트에서 나오는 것으로 아는 아이들도 있다. 또 제철이라는 의미를 잘 모른다.

황 대표는 “요즘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생 체험행사로 농가에 가서 딸기나 블루베리를 따고, 고구마를 캐기도 한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 이전에 왜 고추장을 만들고, 김장을 하고, 어떻게 두부를 만드는지 우리의 식생활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군가는 그것을 해야 한다”며 “부가가치를 높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곳이 협동조합”이라고 말했다.

☎문의 053-584-0626



우리 동네 제로 웨이스트 숍 '타에르셀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탄소 저감'이 전 지구적인 사명이 되면서 아예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운동도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달서구 진천동(달서구 월배로 80, 1층 상가 108호)에 있는 '타에르셀바(Taller selva)'도 제로 웨이스트를 표방하는 곳이다. 타에르셀바는 스페인어로 공방(타에르)과 밀림(셀바)을 뜻한다. 타에르셀바를 운영하는 송윤지 씨(31세)는 수년 전 과테말라에 갔다가 그 곳 주민들이 추운 날씨에 손등이 트는데도 불구하고 크림이나 스킨 등을 바르지 않는 것을 보고, 천연소재로 비누와 화장품 등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귀국 후 화장품과 비누 등을 만드는 수업을 듣고 4년 전 가게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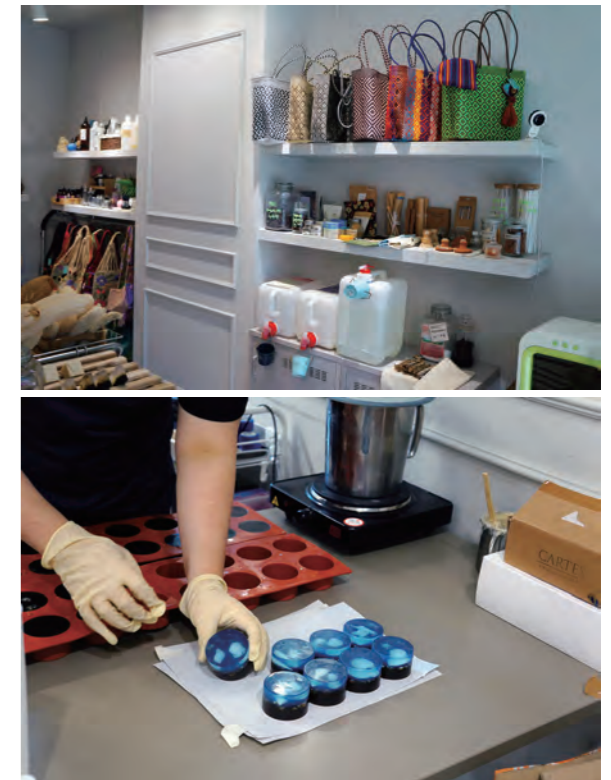


비누, 샴푸, 화장품, 수세미 등 수십 종 무포장(無包裝) 판매

가게에서는 송 씨가 직접 천연소재를 활용해 만든 비누와 샴푸, 화장품 등 수십 종의 생활용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또 남미에서 수입한 천연소재로 만든 가방과 장바구니, 친환경 소재로 만든 인테리어 소품과 반려동물 용품, 부모님이 직접 기른 천연 수세미들도 판매한다. 이 곳에서는 고객이 구매했던 동일 제품의 화장품이나 샴푸 등을 소량으로도 판매한다. 일명 리필 스테이션으로 명명된 테이블 위에는 용기마다 1g당 40원, 95원, 100원 등의 가격이 표시돼 있다. 고객은 텀블러로 커피를 구매하듯이 직접 용기를 가져와 필요한 만큼 구매할 수 있다. 타에르셀바에서는 제품을 포장하지 않고 오로지 제품 그 자체만 판매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바일 쇼핑과 배달음식 시장이 크게 성장했지만 타에르셀바와는 무관한 얘기다. 택배로 배달할 경우 포장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제로 웨이스트라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게에는 포장지, 그 흔한 종이가방이나 비닐봉투가 없다.

비누, 화장품 등 one day class 운영

최근 들어 직접 천연 비누나 화장품을 만들어 사용하겠다는 이들이 늘면서 공방에도 직접 제조법을 배우러 오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어린아이를 둔 젊은 주부들이 자주 찾아온다. 대부분 피부가 민감한 아이를 위한 비누나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다. 수업은 여러 명이 동시에 수업하는 형식이 아닌 1대 1, one day class를 고집한다. 비누의 경우 1시간 정도 진행하며, 직접 제조한 100g 크기의 비누 10~12개를 수령해 간다. 비용은 수강료와 재료비를 합해 약 4~5만 원 정도다. 샴푸는 250~500ml 크기며 화장품은 100~200ml, 가격은 재료비에 따라 조금 유동적이다. 샴푸나 화장품은 다 사용한 후 공방에서 같은 제품을 리필해 사용할 수 있다. 리필은 1g당 40~100원이다. 현재 가게에는 10여 종의 비누와 천연 화장품이 구비돼 있다. 또 one day class 외에 취미반과 자격증 취득반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또 제로 웨이스트라는 단어가 회자되면서 문화센터나 학교 등에서 강연을 요청해 외부 강연도 자주 다닌다.



무포장 구매 습관 들이고, 1회용품 사용 자제해야

물건을 보호하고 보관하기 위해 사용되는 종이, 비닐, 플라스틱 등 포장재가 오히려 인간에게 역습을 가하고 있다. 2008년 유통 및 제조회사들은 2차 포장재(목음판매용 포장)를 줄이는 '그린마일리지 캠페인'을 펼친 바 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2차 포장재는 넘쳐나고 있고, 또 다른 2차 포장재인 택배용 포장재까지 아파트 현관 입구에 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송 씨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동물도 인간만큼 쓰레기를 배출하지는 않는다. 동물들은 생존과 직결되는 것만 배출하지만 인간이 배출하는 쓰레기는 인간의 편의 즉, 이기로 인해 만드는 쓰레기가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로 기후 위기라는 재앙이 목전에 와 있다. 무포장 구매 습관을 들이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개개인이 버리는 쓰레기 양을 절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 문의 타에르셀바 070-7788-7772

밤의 화가 김종언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주변에서 잘한다, 잘한다고 하니 신이 났나보다. 고향인 봉화에는 그림과 연관되는 게 전혀 없었지만, 친구들 몇 명하고 만화책 등을 보고 그림 그리는 것을 즐겼다. 미대로 진학해 서양화를 전공한 뒤 30년 가까이 달서구 상인동에 터를 잡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



밤을 그리니 밝아지고, 사람이 없으니 더 많은 사람 보여

상인동 화가의 화실을 찾았을 때, 마치 사진을 찍어서 인화해 놓은 듯 푸른 회색의 눈 오는 밤 그림들이 화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햇볕이 내리쬐는 낮이나 비 오는 밤, 달이 뜬 밤들은 찾을 수 없었고 오로지 눈 오는 밤 그림들뿐이었다.

화가가 처음부터 눈 오는 밤을 그린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낮 풍경을 그리고, 비 오는 거리, 안개 낀 아침 등 다양한 구상화를 그렸다. 그런데 밝은 낮 풍경인데도 어두웠다. 그래서 밤을 그렸더니 오히려 '밝다'는 반응이었다. 그때부터 밤을 그리기 시작했다. 비 오는 밤과 안개 자욱한 밤을 그렸지만, 눈 오는 밤이 제일 좋아 20년 가까이 눈 오는 밤만 그리고 있다.



2



3

- 1 밤새(145.5 x 98.0cm)
- 2 밤새(72.7 x 53.0cm)
- 3 밤새 목포 서산동(90.9 x 65.1cm)

그리는 행위는 대화의 연속

요사이 대구의 겨울은 눈이 드물다. 그래서 눈 오는 곳을 찾아가야 한다. 일기예보를 듣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눈 오는 광경을 보고 차를 몰아 달려간다. 몇 시간을 차로 달려 적당한 곳에 주차한 다음, 구도가 좋은 곳을 찾아 다닌다. 모두가 잠들고 가로등만이 내리는 눈을 비추는 골목길을 홀로 걷는다. 눈으로는 화폭에 담을 물건을 찾고, 머릿속으로는 담벼락 너머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수십 년 동안 켜켜이 쌓여있는 골목길의 흔적을 상상한다. 새벽녘 이방인의 인기척에 잠을 깨울까봐 숨죽여 걸지만 개 짖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리고, 혼비백산이 돼 냅다 달리다 넘어져 다치기도 했다. 목포에는 수십 번 가봤다. 세월이 비껴간 듯 오래된 집들이 웅기충기 붙어 있는 유달산 아래 비탈진 동네가 유달리 정이가, 목포에 눈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달려간다. 가서 밤새 사진을 찍고는 화실로 돌아온다. 그리고 화실에 홀로 앉아 사진 속 집들과 골목을 기웃거리며 대화를 나누고 그 이야기 마디마디를 화폭에 담아낸다. 그래서 화가는 '그리는 행위는 곧 대화의 연속'이라고 한다.

그림의 무대인 목포나 광주에서 전시회 할 터

목포 그림이 많다 보니 전시회를 할 때마다 고향이 어디냐는 물음을 자주 듣는다. 고향은 커녕 목포에서 전시회 한 번 연 적이 없으니 그 물음을 들 때마다 기분이 묘하다고 한다. 그래서 언젠가는 목포나 광주에서 전시회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기분이 묘한 이유를 물었더니 화가는 "감사함과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말했다. 화가는 집들과 골목, 동네, 그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 그림의 배경이 되어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또 그림의 실제 배경은 현재 재개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머지않아 지금의 집도, 골목도, 마을도 모두 사라지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그때가 되면 '눈 오는 밤 목포' 그림들을 보면서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것이 화가의 바람이다. **김종언(金鐘彦)**은 1965년 봉화에서 출생해 영주고등학교와 계명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달서구 상인동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각종 공모전 특선 11회와 입선 6회, 대구시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1

평생 배움, 잘 갖춰진 복지제도 한국 오길 잘했어요

결혼이주여성 쉬레이(徐磊)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다문화가구 수는 34만 6,017가구이며, 이 가운데 결혼이민자 가구 수가 82.4%를 차지하고 있다. 또 대구시가 2020년 11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구원 수는 총 3만 3,373명으로, 달서구 거주자가 7,928명으로 가장 많다. 이 가운데 결혼이민자는 1,399명, 한국인 배우자를 둔 경우는 1,123명이다. 본동에 거주하는 쉬레이(徐磊) 씨도 그 중에 한 명이다. 쉬레이 씨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가 고향이다. 그곳 전문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성서공단에 본사를 둔 ㈜푸드윌의 중국법인에 입사해 7년간 근무했다. 회사 근무 중 한국으로 6개월 연수를 왔을 때 본사에 근무 중인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3년간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국제연애를 한 끝에 결혼해 2017년 대구로 왔다.

한국에 온 첫 해에 사내아이를 낳고, 이듬해 딸아이를 출산했다. 엄마가 됐지만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할지 막막했다. 급기야 산후 우울증이 생겼다. 보통의 한국여성들이라면 친정어머니가 여러모로 챙겨주겠지만 쉬레이 씨는 입장이 달랐다. 다행히 통영의 시부모님과 남편이 극진히 챙겨줘 우울증도 극복하고 체력도 회복할 수 있었다. 쉬레이 씨는 “시어머님께서 친딸처럼 챙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가족센터에서 배우면서 사는 재미 느껴

2017년 대구로 맨 처음 왔을 때는 주변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한국어 실력도 일천했다. 관광객으로 왔다면 보고 싶은 것 보고, 먹고 싶은 것 먹고 가면 그만이다. 하지만 생활은 달랐다. 언어는 물론이고 한국의 사회 시스템을 모르니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린이나 다름 바 없었다. 남편이 출근하면 혼자 아이들과 씨름하는 것으로 4년을 보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됐을 때, 배움의 문을 두드렸다. 지난해 처음 달서구가족센터를 찾았다. 가족센터는 쉬레이 씨에게 서광과도 같은 곳이었다. 컴퓨터를 비롯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즐비했고, 중국과 달리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었다. 컴퓨터와 한글, 놀이지도 등 신청한 프로그램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업을 들었다. 가족센터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만나고 배움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을 알게 되자 사는 재미를 느꼈고, 목표가 생겼다.

쉬레이 씨는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으니 너무 좋다. 특히 우리 같은 이주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어 하루하루 배우는 것 자체가 즐겁다”고 말했다.

같은 처지 이주여성들에게 도움 주고파

쉬레이 씨가 올해 가족센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했거나 취득할 자격증은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세계전래놀이지도사 등 모두 8개. 쉬레이 씨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열심히 이유는 스스로 역량을 키우겠다는 것 외에도 같은 처지의 이주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쉬레이 씨는 ‘무늬만 성인’이었다. 또래의 한국인이려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쉬레이 씨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었다. 자신이 겪은 시행착오를 남들은 덜 겪도록 도와주고 싶은 것이다. 쉬레이 씨는 “열심히 배워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고 싶다. 그것이 내가 가족센터에서 받은 혜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현재 쉬레이 씨는 가족센터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놀이지도를 하고 있다. 또 달서구가족센터 SNS기자단으로도 활동



하고 있다. 기자단 5명 가운데 이주여성은 쉬레이 씨가 유일하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 이주민들에게 가족센터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5월부터 시작한 블로그에는 아직은 서툰 한글로 가족센터에서 진행한 한가위 행사와 한글 백일장 등 행사 사진과 글들이 올라와 있다.

중국어 교사와 통·번역가 꿈... 방통대 3학년으로 편입학

쉬레이 씨는 올해 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3학년으로 편입학했다. 학위를 따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칠 계획이다. 또 대학 졸업 후 기회가 된다면 대학원에 진학해 한·중 통역 및 번역가를 하겠다는 생각이다. 보통의 한국 학생들은 중국어 교사나 통역을 하기 위해서 중국어 공부를 많이 해야 하지만, 쉬레이 씨는 오히려 한국어를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요즘은 특히 한국어 발음과 쓰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또 한국인처럼 생각하는 것도 노력 중이다. 한국인처럼 생각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문화와 생활방식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배우는 중이다.



춤은 나의 인생 춤으로 어르신들께 활력 주고파 무용협동조합 춤날 이승대 이사장

“평소에 억눌려 있던 내 안의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면 그 순간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 “그래서 춤은 자기감정 표현이 서툰 청소년들에게 자기표현의 수단이자, 훌륭한 치유 방안이 되기도 한다.” 무용협동조합 춤날 이승대 이사장의 춤 예찬론이다.



Lee Seung Dae

열다섯 살 때 친구 따라갔다가 발레 입문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친구 따라 발레 학원을 갔다. 지금도 발레리노가 흔치 않은데 1980년대 발레를 하는 남학생은 극히 드물었다. 그런데 학원 원장도, 강사도 남자라는 것이 신기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해오고 있다는 소리에 학원 원장은 곧바로 발레복을 내밀었다. 처음 접하는 발레였지만 재미있었다. 며칠 후 부모님께 발레를 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대는 완강했다. 일주일간 부모와 자식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갖은 협박과 설득에도 고집을 꺾지 않았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던가. 단식과 침묵 시위에 결국 부모님이 백기를 들었다. 방과 후에는 학원으로 달려가 저녁 수업시간까지 연습을 했다. 무엇보다 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재미있었다. 같은 발차기를 해도 태권도는 골반을 밀어주면서 차지만, 발레는 오히려 골반을 당기면서 발을 찼다. 수년간 태권도를 통해 다리 찢기와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기본이 돼 있으니 배우는 속도가 빨랐다. 부산에 고(발레)를 거쳐 부산대학교 무용학과(현대무용)로 진학했다. 현대무용으로 전공을 바꾼 것은 정해진 틀에 맞춰야 하는 발레보다는 자유로운 현대무용이 더 적성에 맞았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 각종 콩쿠르에서 대상을 비롯한 다수의 상을 수상하면서 이승대의 이름을 알렸다. 뉴욕 등 해외 연수를 통해 최신 트렌드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직접 익혔다. 대학 졸업 후 작품 활동을 통해 무용수 이승대의 이름 석 자를 각인시키고 있을 무



렵, 지인으로부터 부산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활동할 것을 권유받았다. 서른한 살 때였다. 트렁크에 옷가지 몇 개만 챙겨 넣고 대구로 올라왔다. 대구시립무용단으로서 새로운 출발이었다. 2010년 수석무용수 자리를 후배에게 물려주고, 9년 동안 몸담았던 대구시립무용단을 나왔다. 시립무용단을 그만두자 주위에서는 앞으로 10년 이상은 더 할 수 있는데 왜 나왔냐고 나무랐다. 이 이사장의 생각은 달랐다. 50살이 돼 나오면 뭘 해야 할지 막막할 것 같았다. 10년 일찍 나가서 50대 이후를 준비하자는 생각이었다. 그 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국내외를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해왔고, 지난 8월 후배 및 제자들과 의기투합해 무용협동조합을 만들었다.

무용협동조합 통해 후배들에게 버팀목이 되고파

과거에는 무용을 전공하면 전문 무용수로 활동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대부분 학원을 차렸다. 하지만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덩달아 무용을 배우려는 아이들 숫자도 줄어서 학원을 개원하기도 쉽지 않다. 전문 무용수의 자리는 적고 수입마저 일정하지 않으니 그만큼 미래가 불안정하다. 그렇다고 수십 년 해 왔던 춤을 그만두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무용협동조합 ‘춤날’을 설립했다. 춤날은 춤으로 나를 일으켜 세운다는 의미다. 비록 당장은 힘이 들더라도 후배들에게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작은 버팀목이 돼주고 싶었다. 춤날은 크게 두 가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과 작품 활동이다. 교육은 시니어와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작품 활동은 지자체나 단체 등에서 특정 주제에 맞는 작품을 의뢰받거나 자체 공연 등으로 할 계획이다.

청소년에게는 자기표현, 어르신에게는 삶의 활력 주고파

청소년은 아무래도 성인에 비해 감정 표현이 서툴고, 행동에 있어서도 제약이 많다. 비단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외에도 억눌려 있는 것이 많을 수 있다. 아이들을 처음 가르칠 때는 반드시 하는 주문이 있다. ‘등을 펴라’. 청소년기 대부분의 아이들은 무거운 책가방을 메면서 등이 굽어 있다. 무용은 몸이 발라야 제대로 된 동작이 나온다. 그래서 우선 등을 펴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다. 요즘 한창 인기를 얻고 있는 필라테스도 무용의 영역이다. 그만큼 무용은 바른 몸을 만드는 데 효과적이다.

반면, 나이 드신 어른들은 몸이 굳어 있어 바른 몸을 만들기 어렵다. 대신 평소 생활 속 활동들을 무용 동작으로 재현함으로써 재미와 근력을 키우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설거지 동작이나 화투를 치는 동작을 아주 천천히 무용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은 기구를 갖고 휠체어에 앉아서 놀이처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무용을 통해 은퇴 후 공무원이나 경로당 등 사회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 어른들에게 생활의 활력과 재미를 주는 것이 목표다. 이른바 춤날이 생각하는 ‘사회적 미션’이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어른들을 무대에 세워 공연을 할 계획도 갖고 있다.

춤은 나의 인생 그 자체

“춤은 나에게 있어 살아왔던 인생이자 살아갈 인생이다.” 이 이사장은 지금까지 몇 번 춤을 그만뒀어야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막상 춤을 그만뒀을 때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니 춤밖에 없었다. ‘결국 내가 있을 곳은 무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30년 넘게 춤의 인생, 인생의 춤을 추고 있다.

빛으로 그리는 무대(舞臺) 이야기

달서아트센터 채승훈 조명감독



달서아트센터 채승훈 조명감독을 만나 조명과 관련된 무대 뒷이야기를 들어봤다. 채 감독은 2013년도 달서첨단문화회관 때부터 현재까지 일을 해오고 있다. 현재 달서아트센터는 455석의 대극장 청룡홀과 212석의 소극장 와룡홀 두 개의 극장이 있다. 두 개의 극장에서 다양한 공연이 여러 조명으로 꾸며져 무대에 올려 진다.



일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회사 내에 사내행사도 하고 소규모 공연도 하는 소극장이 있었는데 부수업무로 소극장 관리를 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무대라는 도화지에 붓 대신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조명에 매력을 느꼈다.

조명감독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조명감독은 조명기술 분야의 책임자로서 조명기, 장비, 회로 시스템 등 기술적인 부분의 설치와 관리를 책임지며 조명디자이너의 디자인이 실현되도록 해준다. 조명디자이너가 넘겨준 조명계획도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명기의 확보와 설치, 모든 조명장비의 보관과 유지, 공연 중 모든 조명장비의 운용에 책임을 지며 조명기 낙하사고, 전기화재 등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직접 공연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힘든 공연이나 보람된 공연이 있었는지?

대부분 클래식 공연 시에는 음향 반사판을 내리고 기본 화이트 조명으로 진행되나 요즘은 영상과 함께 조명연출이 필요한 세미클래식 공연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음향 반사판을 내리면 조명기 설치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진다.

매년 열리는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같은 경우 빡빡한 일정으로 계속 야간근무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비전문가인 대학생들이 조명작업을 하다 보니 체크할 사항도 많고 신경이 많이 쓰인다. 하지만 공연이 끝난 다음 학생들이 순수하게 감사인사를 할 때는 보람을 느낀다.

조명도 트렌드나 변화가 있는지?

물론 있다. 과거 수동으로 하는 조명작업이 전자조명장비기술의 발전에 따라 표현해 낼 수 있는 컬러나 기능들이 다양해지면서 예전보다 화려하면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추세이다. 그만큼 좋은 공연도 많이 봐야 하고 기술 세미나 등을 통해 변화에 뒤처지지 않게 계속 노력해야 된다.

조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해줄 말이 있는지?

업무특성상 야간근무와 주말근무가 많고 바쁠 때는 식사도 제대로 못할 경우가 있다. 단순히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무엇보다 본인이 관심이 있어야 하고 재미도 느껴야 한다. 쉽지 않은 직업이다.

조명인으로 갖추어야 할 소질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빛의 특성에 관심을 갖고 평상시에 관찰력을 키워야 한다. 태양의 위치, 흐린 날, 맑은 날 등에 따라 빛의 질감, 음영 등이 다 다르다. 전기나 통신의 기술적인 면도 알고 있어야 한다. 극장의 장비나 시스템들이 전기, 통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를 전공한 제 입장에서 많이 도움이 된다.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최근에 달서아트센터가 과거보다 많이 발전했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공연 콘텐츠만큼이나 무대도 편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ON AIR

영화 '검은 사제들' 속 월배성당

주인공 김 신부와 영신의 추억의 장소 월배성당

푸르른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여자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카메라 앵글은 노랫소리를 따라 아래로 움직인다. 성가대 옷을 입은 영신(박소담)이 성당 마당에 서서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라는 성가를 부르고 있고, 김 신부(김윤석)가 영신의 바로 앞 벤치에 앉아 영신을 바라보며 노랫소리에 맞춰 고개를 아래위로 끄덕이고 있다. 영신이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를 부르는 순간, 고음에 갈라지는 소리가 나오자 김 신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다. "영신아"라고 말하며 벤치에서 일어나 영신의 뒷머리를 쓰다듬으며 "기도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자. 성가대는 포기하고"라고 하면서 영신을 본당으로 이끈다. 그러자 영신은 발을 구르며 "야~ 신부님, 저 정말 잘 한단 말이예요" 하며 앙탈을 부리며 따라간다. 2015년 개봉한 영화 '검은 사제들' 속 월배성당이 등장하는 장면이다.



본당 내부



성모당

‘검은 사제들’은 뺑소니 교통사고 후 의문의 증상에 시달리는 여학생 영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구마예식(驅魔禮式, exorcism 엑소시즘)을 거행하는 신부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영신은 교통사고 후 병실 창문으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해 차 지붕 위에 떨어진 후 뇌사상태가 돼 있다. 김 신부는 구마예식을 통해 영신으로부터 악마를 떼어내 영신을 구하고자 한다. 구마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소나 사물 또는 사람을 악마에 의한 고통과 파괴, 사로잡힘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리스도교, 특히 로마 가톨릭교회의 구마의식이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교회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되고 마귀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청하는 것을 ‘구마’라고 한다.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셨으며, 교회는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과 의무를 예수님께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개봉 당시 한국 영화로는 처음 다루는 소재로 주목을 받았었다. 영화의 주인공인 구마예식을 거행하는 신부로 김윤석, 그를 돕는 부제는 강동원이 맡았고, 조연급인 부마자 여학생 영신은 박소담이 연기했다.

월배성당은 영화에서 김 신부(김윤석)가 과거 부임해있던 성당으로 영신(박소담)과의 추억이 어린 장소다. 영화에서 월배성당이 등장하는 신은 뺑소니 사고 후 김 신부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나온다. 2015년 여름 영화 촬영 당시 하루 동안 성가대 테스트 장면 외에도 두 장면을 더 찍었지만, 편집과정에서 두 장면은 삭제되고 영신이 김 신부 앞에서 노래하는 장면만 영화에 삽입됐다.

1958년 건립, 초대 박재수 주임 신부 사제 출연해 건립

월배성당은 1958년 당시 회원본당 주임신부였던 故 박재수 신부가 사재를 출연해 약 3,500평 부지를 매입해 건립했다. 당시 매입할 부지 내 돌담 옆에 붙은 움막에는 거지들이 살고 있었고, 나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워 집을 한 채 장만해줬다는 후문이다. 이듬해 강당과 사택을 증축해 완공됐다. 현재 성당의 본당과 성모당(聖母堂)은 1958년 건립 당시의 모습 그대로다. 본당은 로마네스크양식의 붉은 벽돌로 지었다. 또 현재 성당입구에 있는 김대건 신부 동상은 1978년 사목회 김춘병 회장이 기증해 건립한 것으로 처음에는 성물방 옆에 위치해 있었으나, 2006년 이곳으로 옮겼다. 동상 건립 당시 서울의 서강대학교를 찾아가 김대건 신부의 모습 등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

본당의 창은 같은 고딕양식의 명동성당이나 계산성당의 창들이 아래와 좌우가 직선이고 윗부분이 타원형의 아치형으로 된 것과 달리 월배성당의 창들은 모두 직사각형으로 된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 짓는 성당에는 종탑이 드물지만 과거 시계가 흔치 않았던 시절 성당의 종소리는 시간을 알리는 신호였다. 월배성당의 종탑에는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등 네 명의 복음사가상이 세워져 있다.

성모당은 성당 입구에서 본당을 지나 수도원을 향하는 성당 마당 한중간에 있으며 19세기 중엽 성모가 발현했다는 프랑스 루르드 지역의 마사비엘동굴을 본떠 만든 것이다. 성모당 상단 가운데에는 ‘평화의 오후여’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고, 글귀 양옆으로는 성모당 착공일 1958년 3월 11일과 완공일 1958년 4월 20일이 새겨

져 있다. 이곳에서는 신자들이 기도를 하거나 미사(Missa;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를 보기도 한다. 영화 촬영 당시 성모당 앞에서도 촬영을 했지만 개봉된 영화에는 삽입되지 않았다.

월배성당의 전신은 회원성당의 조암공소였다. 당시 회원본당의 주임 신부였던 박재수 신부는 월배지역에 섬유공장들이 들어서고 인구가 모여들자 본당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1955년 성당 건립을 건의했다. 1957년 본당 건립 승인이 났고, 그 해 9월과 10월 부지를 확보했다. 1958년 월배성당이 건립되면서 회원본당에서 분가했으며, 또 월배성당으로부터 송현성당(1982), 상인성당(1991), 월성성당(1992), 대곡성당(1996) 등으로 분가했다. 현재 월배성당의 신자는 약 4천여 명이다.

성당에는 너른 마당이 있고, 마당에는 성당을 지을 때 심었다는 아름드리 팽나무와 느티나무가 성당과 함께 나이를 먹고 있다. 녹음이 우거지는 여름이면 이웃 주민들에게 넉넉한 쉼터를 제공하기도 한다.

곶벚뚝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월배성당

1995년 12월 월배성당은 대구대교구 관할에서 곶벚뚝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소속본당으로 편입됐다. 곶벚뚝알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1209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설립한 수도회이다. 곶벚뚝알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1958년 처음 한국에 진출했으며 부산에서 사목(司牧)을 시작했다. 현재 서울 한남동 관구본부를 비롯해 부산과 대구, 인천 등지에서 사목하고 있다. 곶벚뚝알은 공동, 집합이라는 라틴어에서 온 것으로 모여 사는 공동체를 뜻한다.



영화 ‘검은 사제들’ 속 월배성당

대구에서는 1959년 범어성당에서 사목을 해왔으며 1996년 범어성당을 대구대교구에 다시 돌려주고 월배성당으로 이전해왔다. 당시 대구대교구는 수년 후 있을 대구교구 설립 100주년(2011년)을 맞아 기념 성당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기념 성당 건립지로는 수도원이 있던 범어동이 최적지로 선정됐고, 수도원의 부지를 교구에 내어주는 대신 몇 군데 이전할 곳을 제시받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월배성당이었다.

월배성당으로 오자 성당 곳곳에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이 묻어 있었다. 초대 주임신부 박재수 신부는 보통의 교구 신부들과 달리,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에 관심이 높아 교구 사제로서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가입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수도자는 아니지만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성당 마당에는 성 프란치스코상을 세웠었다. 훗날 옮기는 과정에서 손상을 입었고, 현재 성당에 있는 성 프란치스코상은 수도회가 온 뒤 새로 세운 것이다. 박 신부는 생전에 “이곳에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이 펼쳐지리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어쩌면 박 신부는 이미 40년 전에 수도회가 월배성당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수도회가 월배성당으로 온 후 수도원과 교육관 등을 새로 건립하고 현재의 모습으로 변했다. 현재 성당의 건물로는 본당과 교육관, 수도원, 수도회가 운영하는 교육관(인프란치스코) 등 4개의 건물로 구성돼 있다. 수녀원과 사무실은 본당이 운영하는 교육관 내에 속해 있다. 한편 범어동 수도원이 있던 곳은 지금 대구대교구 100주년 기념 성당이 들어서 있다.



from Dalseo

.....

문화 + 예술 = 삶,

일상

문화로 소통하고
예술로 공감하는
삶, 일상이 되는 곳 달서문화재단



희망달서 큰잔치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희망달서 큰잔치>가 3년 만에 구민의 걸음으로 돌아왔다. 비대면에서 벗어나 구민들이 서로 마주하며 일상으로 돌아왔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달서아트센터 일대에서 10월 14~16일 3일 동안 펼쳐졌다. 아쉽게도 축제를 함께하지 못했던 구민 혹은 독자들을 위해 3일간 펼쳐진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을밤을 수놓은 오케스트라 선율

달서 그린 콘서트

지휘자 이태은의 지휘 아래 우리에게 친숙한 오페라 <카르멘> 서곡이 연주되며 2022 <희망달서 큰잔치>가 시작되었다. 다소 정적일 수 있는 분위기를 특유의 유머로 풀며 관객들과 소통하는 지휘자 덕분에 웃음소리와 CM심포니오케스트라의 선율이 함께 달서아트센터 야외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탱고, 미림바와의 협연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땔 수 없게 만드는 1부에 이어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천둥호랑이' 권인하와의 협연으로 2부가 진행되었다. <사랑이 사랑>, <만약에> 등의 대중가요를 오케스트라를 위한 편곡한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었다. 협연 작품에 따라 기민한 앙상블로 다채로운 표현을 보여준 CM심포니오케스트라 덕분에 행복함과 감동으로 <희망달서 큰잔치>가 막을 올렸다.

관객과 하나되는 춤판

필 더 리듬(Feel the rhythm)

<스트릿 무언 파이터>의 흥행으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무용이 달서아트센터 정원무대에서 이를 동안 펼쳐졌다. 첫째 날인 10월 15일 지역 대학에서 모인 10개 팀이 스트릿 댄스, 코레오, 재즈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무용 작품으로 <희망달서 큰잔치>를 찾은 관객들을 끌어당겼다. 공연 초 내리쬐는 햇볕을 피해 그늘에 숨어 공연을 지켜보던 관객들은 시간이 지나자 무대 쪽으로 나와 환호성을 보내다 어느새 무대를 완전히 에워싸며 함께 공연을 즐겼다. 5개의 우수팀은 그 다음 날인 10월 16일 앙코르 공연으로 그 열기를 이어갔다. 일요일에 열리는 앙코르 공연이었지만 전날 보다 더 많은 관객들이 5개 팀을 맞이했다. 뜨거운 관객들의 반응에 달서문화재단 이사장인 달서구 이태훈 청장도 행사장을 찾아 청년 무용수들을 격려하고, 객석에서 공연을 끝까지 관람했다. 실내전문 공연장이 아닌 푸른 나무 아래 야외무대였지만 무용수들은 다양한 동선과 소품으로 작품을 꾸려 전문공연장과 다름없는 무대를 선보였다. 객석에서 올려다보는 무대가 아니라 개방된 곳에서 무용수와 관객들이 같은 눈높이로 서로를 마주보고 같이 호흡하면서 춤판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일상 공간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달서구임을 증명해 낸 <필 더 리듬>이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주민화합 한마당

희망달서 행복콘서트

객석을 가득 메운 구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구의 중심, 달서의 시대”를 외치며 시작된 <희망달서 행복콘서트>. 코로나19로 흩어졌던 구민들이 다시 모이는 ‘희망과 화합의 장’을 지향하고자 전 세대를 아우르는 트로트로 꾸러졌다. ‘트로트신사’ 설운도가 <사랑이 이런건가요>를 시작으로 <보랏빛 업서>, <갈매기 사랑> 등을 부르며 관객들의 흥과 박수를 끌어냈다. 뒤이어 외국인 트로트가수 로미나, 대구 출신의 가수 방수정에게도 관객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고, 이에 화답하듯 가수들은 무대 중간 중간 관객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했다. 피날레로 무대에 오른 가수 태진아는 <동반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잘 살꺼야> 등 자신의 히트곡들로 때창을 이끌어내며 관객들을 열광시켰다. 달서아트센터 야외공연장을 찾은 남녀노소 관객들을 하나로 묶은 트로트로 <희망달서 행복콘서트>는 성황을 이루었다.

현재를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들을 향한 위로

청춘, 그 찬란한 날들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음악극 <청춘, 그 찬란한 날들>이 3일 동안 이어진 <희망달서 큰잔치>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학업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고등학생, 꿈을 포기할 수 없는 청년, 주눅 드는 회사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직장인 등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이 자신만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을 연극, 음악, 무용에 담아낸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묵직한 울림을 주었다.

전날의 <희망달서 행복콘서트>처럼 흥겨운 무대는 아니었지만 가족이기에 말하지 못했던 고민들을 공연을 보며 이야기하고, 위로받으며 희망과 화합의 장을 만드는 데 있어 손색없는 폐막 공연이었다. 3년 만에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을 끝으로 폐막을 알린 <희망달서 큰잔치>는 내년 축제를 기약하며 마무리됐다.



“21세기를 대표하는 클래식 스타들의 만남” 레이 첸 & 선우예권 듀오 리사이틀

미국 커티스 음악원 동창, 프로 무대에서 다시 호흡 맞춰
낭만시대의 대표적인 소나타로 프로그램 구성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환상의 선율 선보여

달서아트센터는 지난 9월 2일(금) 19시 30분, 청룡홀에서 DSAC 시그니처 마지막 무대로 바이올리니스트 레이 첸과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듀오 리사이틀을 성황리에 마쳤다.

두 아티스트는 미국 커티스 음악원 재학 시절을 함께한 동창으로 당시 많은 연주를 통해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후 각자의 자리에서 수준 높은 기량을 보여주며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한 이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공식적인 듀오 연주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레이 첸은 2008년 예후디 메뉴인 콩쿠르 우승, 2009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과 함께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대만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자란 그는 활발한 연주 활동과 함께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유럽을 비롯해 미대륙, 아시아 등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포브스지에서 선정된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아시아인에 선정된 바 있다.

선우예권은 국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젊은 피아니스트로 2017년 북미 최고 권위의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우승자로 명성을 알렸다. 이 외에도 인터내셔널 저먼 피아노 어워드, 베르비 콩쿠르 석권 등 한국인 피아니스트 최다 국제 콩쿠르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번 듀오 리사이틀에서는 낭만시대의 대표적인 소나타들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을 연주해 노르웨이 자연의 색채미를 서정적인 멜로디로 들려줬다. 레이 첸의 드라마틱한 바이올린 연주와 선우예권의 절제된 피아노 연주는

짧은 시간 안에 청중을 몰입시켰다. 이어 전쟁에서 희생된 이를 기리기 위해 작곡된 폴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주하며 둘의 환상적인 호흡을 증명했다. 이어 2부에서는 프랑크의 실내악 곡 중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바이올린 소나타 연주를 선보이며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조화롭고 로맨틱한 선율로 무대를 가득 채워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본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에서는 레이 첸의 재치 있는 유머와 입담으로 객석 분위기를 띄웠다. 앙코르는 무려 4개의 곡을 연주했으며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7번 7번과 몬티의 차르다시, 그리고 마지막 드뷔시의 달빛으로 많은 이들에게 여운을 남기며 끝냈다.

21세기를 대표하는 클래식 스타인 두 연주자가 한 무대에서 호흡을 맞추는 특별한 공연이었다. 권위 있는 콩쿠르에서 실력을 입증받은 두 사람의 연주는 지역민들에게 뜨거운 감동 그 이상을 선사했다.



21세기 클래식 뮤지션의 역할을 재정립한 바이올리니스트 레이 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선두적인 아티스트로 동시대의 관객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즉각적인 반응을 얻는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동안 그는

자신의 집에서 직접 녹음한 상당한 수준의 레코딩을 발매하는 등 자신의 놀라운 음악성과 창의성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전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저명한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는 2008년 예후디 메뉴인 콩쿠르 우승, 2009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과 함께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그의 출생지인 호주를 비롯해 유럽, 아시아, 미대륙에서의 공연과 다양한 음반 발매를 통해 명성을 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LA 필하모닉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Play with Ray'라는 이름의 특별한 콩쿠르를 개최하여 전문 음악가가 되지 못한 연주자들에게도 꿈을 빛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는 15살에 커티스 음악원에 입학하여 아론 로잔드를 사사하였고, Young Concert Artists의 후원을 받았다. 또한, 니폰 음악 재단의 후원을 받아 전설적인 미국 바이올리니스트 미샤 엘먼이 소장하였던 1735년 스트라디바리우스 "Samazeuilh"을 사용하고 있다.



2017년 북미 최고 권위의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선우예권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천둥과 같은 종합적인 테크닉을 구사하는 피아니스트”(시카고 트리뷴)라는 찬사를 받으며 국내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연주자

다.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휴스턴 심포니,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뮌헨 필하모닉, 샌디아 필하모니, 로열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 포트워스 심포니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갖고 있으며, 뉴욕 카네기홀, 런던 위그모어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함부르크 엘프 필하모니, 파리 코르토홀, 도쿄 하마리쿠 아사이홀 등 유명 공연장에 올랐다. 스위스 베르비에 페스티벌, 아스펜 페스티벌, 서밋 뮤직 페스티벌, 토론토 서머 뮤직 아카데미 앤 페스티벌, 체임버 뮤직 노스웨스트 등의 세계적인 음악축제에도 초청받으며 솔로 리사이틀을 비롯해 실내악 주자로서의 면모 또한 보여주었다. 2022년에는 포르투갈 마르바오 페스티벌, 그슈타트 메뉴인 페스티벌, 팔레르모 페스티벌에서의 연주를 앞두고 있다. 2017년 데카 골드에서 라벨의 '라발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소나타 2번 등을 담은 앨범 [클라이번 골드 2017]을 출시했고, 2020년 11월 데카 레이블에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아다지오, 판타지 등을 담은 첫 스튜디오 앨범 [모차르트를 발매하며 10개 도시에서의 전국 투어 리사이틀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프로그램

레이 첸 & 선우예권 듀오 리사이틀

에드바르그 그리그 E. Grieg	Violin Sonata No. 2 in G Major, Op. 13 I. Lento doloroso - Allegro vivace II. Allegretto tranquillo	바이올린 소나타 2번 G장조, Op. 13 III. Allegro animato
프랑시스 폴랑크 F. Poulenc	Violin Sonata, FP 119 I. Allegro con fuoco II. Intermezzo	바이올린 소나타, FP 119 III. Presto tragico
Intermission		
세자르 프랑크 C. Franck	Violin Sonata in A Major I. Allegretto ben moderato II. Allegro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III. Recitativo - Fantasia. Ben moderato IV. Allegretto poco mosso



“일상 속 문화예술”을 실현하는 공간, 달서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

“예술은 언제나 내 곁에”
달서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와 함께하세요.

달서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 가을학기 | 9~11월 | 수강생 모집

예술인문특강

서희주 현직 전문가는 예술작품 3.4(화)-3.11(화) / 18시	김중기 영화 속 명장면을 찾아서 9.19(월)-10.24(월) / 18시	최덕훈 오페라 3걸 9.20(화)-10.12(화) / 18시	김영민 클래식의 현대예술 10.7(화)-11.11(화) / 18시	이수진 다시 확인하라, 클래식 10.16(화)-11.9(화) / 18시
--	---	--	---	--

예술로 즐기는 가을

강좌명	강좌일정	강좌요일	강좌시간	교과비
캘리그래피	9/19, 9/26, 10/3, 10/10, 10/17, 10/24	매주 화요일	14:00-16:00	
세련된 달서아트	9/16, 9/23, 9/30, 10/7, 10/14, 10/21, 10/28	매주 화요일	15:00-17:00	4천원(4회) *재료비 별도
수채화/유화	9/17, 9/24, 10/1, 10/8, 10/15, 10/22, 10/29	매주 토요일	10:00-12:00	
다중매체미술	10/8, 10/15, 10/22, 10/29	매주 토요일	10:00-12:00	

예술실기 클래식, 국악, 실용음악, 미술, 공예 등 100여개 예술실기 강좌 학기제 | 3개월 | 운영

가을학기 예술아카데미 홍보전단

“일상 속 문화예술”
달서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와 함께하세요.

달서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 겨울학기 | 12~2월 | 수강생 모집

예술인문특강

이수진 다시 확인하라, 클래식 12.7(화)-12.28(화) 매주 수 18시 / 4회	서희주 영화 속 명장면을 찾아서 12.1(화)-2.18(화) 매주 목 18시 / 10회	김중기 영화 속 명장면을 찾아서 12.19(월)-1.9(월) 매주 목 18시 / 4회	김영민 클래식의 현대예술 1.14(화)-2.15(화) 매주 목 18시 / 4회	최덕훈 오페라 3걸 2.1(화)-2.22(화) 매주 수 18시 / 4회
---	--	---	---	---

예술실기 단기강좌(4주)

강좌명	강좌일정	강좌요일	강좌시간	교과비
세련된 달서아트	12/6, 12/13, 12/20, 12/27	매주 화요일	15:00-17:00	
캘리그래피	12/6, 12/13, 12/20, 12/27	매주 화요일	13:00-15:00	
수채화/유화	12/7, 12/10, 12/17, 12/24	매주 토요일	10:00-12:00	
다중매체미술	2/4, 2/11, 2/18, 2/25	매주 토요일	10:00-12:00	

예술실기 강좌(학기제)
클래식, 국악, 실용음악, 미술, 공예, 교양 등 100여개 예술실기 강좌 학기제 | 12주 | 운영

겨울학기 예술아카데미 홍보전단

클래식, 실용음악, 미술, 서예, 무용, 국악, 키즈아트, 교양 등 100여 개의 다양한 강좌 운영

예술인문특강: 전문가의 시선으로 풍부한 예술 감상을 경험

달서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에서는 학기별 전문가의 시선으로 풍부한 예술 감상을 경험할 수 있는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가을·겨울학기에는 ‘월드 팝’, ‘미술’, ‘영화’, ‘클래식’, ‘오페라’ 5개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을 보다 전문적인 시야에서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강좌별 4~6회로 기획하였다. 또한 달서아트센터 기획 공연·전시 연계의 프리뷰를 포함한 강좌 운영으로 지역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예술실기 단기강좌(4주): 일상 속 문화예술을 시작하는 첫걸음

학기제 강좌(12주)를 시작하기 망설여지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예술아카데미에서는 지난해부터 진입장벽을 낮춰 4주 과정의 예술실기 단기강좌를 운영하여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예술실기 강좌: 일상 속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실현

학기제로 클래식, 실용음악, 미술, 서예, 무용, 국악, 키즈아트, 교양 등 100여 개의 강좌를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미중물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일상 속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좌를 운영하였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기는 문화예술

달서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에서는 생애 전반에 이르는 문화예술교육 실현의 일환으로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각각 신청하여 2년 연속 총 4개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결과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 2022년 지역 내 문화시설·자원 기반의 공연 「창작뮤지컬 월곡」, 「움직임으로 읽어주는 햄릿」, 「지혜로운 전래동화 이야기」와 연계한 감상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어른들의 공연감상 놀이터.달서」, 「소리이야기 탐험대」 운영으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지역주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감수성을 증진시켰다.

영상 보러가기(QR코드 스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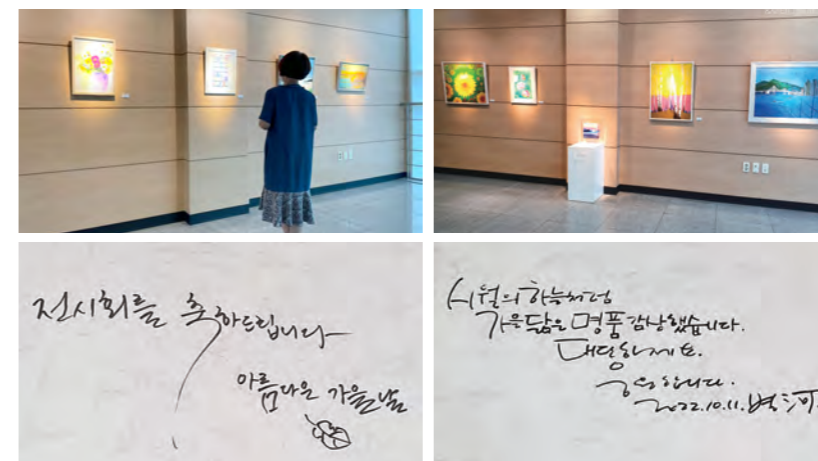
어른들의 공연감상
놀이터.달서



소리이야기
탐험대(1기)



소리이야기
탐험대(2기)



전시 관람후기

- 눈이 즐겁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림을 보고 있는 동안..
- 멋진 작품 잘 보고 갑니다. 마음이 힐링 되네요!
- 섬세하고 따뜻한 색채가 추운 날씨에 움츠러든 마음을 녹여주세요
- 깊어가는 가을 어느 날, 색다른 예술 세계에 잠시 취해봅니다.
- 아름답고 따뜻한 그림에 위안받고 갑니다.

휴식공간에서 작품을 뽐내는 공간으로, 예술아카데미 갤러리

지난 8월, 달서아트센터 별관 2층 휴식공간을 예술아카데미 수강생들의 작품을 뽐낼 수 있는 공간인 '예술아카데미 갤러리'로 탈바꿈했다. '예술아카데미 갤러리'는 수강생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 「제1회 개성에 맞는 맞춤형 수채화/유화展」을 시작으로 「제2회 색연필 일러스트 & 보타니컬아트展」, 「제3회 수채화/유화展」을 성공리에 마쳤다.

예술아카데미에서는 2023년에도 수강생들의 지속적인 예술 활동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예술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이다.



Review

공부는 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달서가족문화센터 최재천 · 김경일 교수 초청 가족특강 개최



달서문화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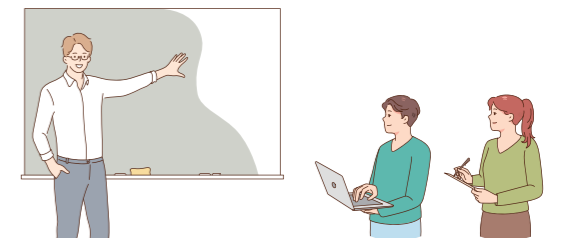
달서가족문화센터는 가을학기 가족특강으로 '공부특집'을 마련하여 9월 29일과 10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와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가을학기 특강 첫 순서로 9월 29일 오전 10시 30분 달서가족문화센터 4층 소공연장에서 '공부의 본질: 공부, 왜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최재천 교수의 특강을 개최했다.

최 교수는 서울대학교 동물학과를 졸업하고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대학원 생태학 석사, 하버드대 대학원 생물학 석·박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최근 '최재천의 공부'를 출간하였다. 강의에서 최 교수는 자신의 성장과정과 당시 비인기학과였던 동물학과로 진학하게 된 계기, 미국 유학 등을 예로 들면서 "▲창의성은 다양성에서 나온다. ▲모든 학생을 일류대학을 목표로 일렬로 줄 세우려고 하지마라.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굶어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아이들 꿈을 맘대로 펼칠 수 있게 뒷바라지 해주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해 아이들에게 삶을 돌려주자"는 내용으로 '다양성을 위한 공부'를 강조했다.

10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는 '1등급 공부법: 재미있게 공부하자'를 주제로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의 특강이 달서아트센터 와룡홀에서 진행됐다. 김경일 교수는 고려대 심리학과와 석사를 졸업하고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 대학원 심리학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최근 『1등급 찢었다』를 출간했다.

특강을 통해 김 교수는 "▲공부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칭찬은 반드시 실명으로 해주되, 꾸지람은 별명으로 해라. 그러면 자녀 인격이 덜 상처 받는다. ▲시킨 일을 했을 때보다는 시키지 않은 일을 했을 때 칭찬해라. 그래야 자율성이 생긴다. ▲좋은 결과에 대한 칭찬이 아닌,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물어봐라. 그것이 칭찬이다. ▲예상보다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복기하는 대화와 ▲아이의 사고력을 키워주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인지심리학 공부법의 세계를 소개했다.



달서가족문화센터

『온가족 여름 캠퍼스』

달서가족문화센터는 7월 한 달 동안 『온가족 여름 캠퍼스』를 운영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여름휴가를 계획하는 가족들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여행 등 실외 활동을 계획하는 가족 이외에도 특별한 여름휴가를 즐기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하였다. 여름학기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방학기간 집중 운영함으로써 남녀노소 모두 센터에서 문화바캉스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가족특강, 가족공연, 부모학교(엄마들의 수다, 육아야빠 고민타파), 가족심리(가족심리 테스트), 부부체험(시니어 부부사랑방), 가족체험(토요가족만세), 시니어 체험(시니어 문화배움터)이 진행되었다. 가족 단위뿐만 아니라 부모, 부부, 시니어 등 대상별로 전 연령대가 참여하였다. 특히 가족특강에는 '진짜 알고 싶은 성 이야기'를 주제로 배정원 행복한성문화센터 대표가 초청명사로 나서 부모들의 올바른 성교육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의견을 전했다. 가족공연은 『All That Dance』 시리즈 중의 하나인 발레를 선보여 평소 접하기 힘든 무용 장르에 해설을 곁들여 알기 쉽게 다가가자 하였다.

『온가족 여름 캠퍼스』는 기존의 가족친화 프로그램 콘셉트를 재구성한 것으로 전년대비 참가자들이 늘어남으로써 내년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맘놓고맘편하게말하기:우리아이여름방학을부탁해』

달서가족문화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돌봄이 필요하거나 자녀의 특별한 방학 생활을 고민하는 가정을 위하여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2주 동안 하루 2시간씩(10:00 ~ 12:00, 13:00 ~ 15:00) 유아 대상(5 ~ 7세) 『맘놓고 맘편하게 말하기:우리아이 여름방학을 부탁해』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보육교사의 돌봄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들의 전문성을 살린 음악, 미술, 과학, 쿠킹 등 요일별로 다양한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단순 돌봄 이상의 교육적인 목표를 이루고자 하였다.

시간대별로 대상을 모집하여 기수별 정원 8명씩 총 16명이 참여하였으며, 운영 종료 후 만족도 조사에서도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개설하여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신청이 이루어졌다. 모집기간 첫 날 오전에 많은 부모들이 직접 방문해 선착순 마감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달서가족문화센터는 내년에도 이 같은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부모들에게 육아 부담을 덜고자 하며, 아이들에게도 수준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달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감 UP! 소통 UP!

여성의 재취업율을 높이고 기업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현장소통을 강화한 구인·구직 쌍방향 공감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여성들의 취업·경력유지를 위한 힘찬 응원

『취업축하Day』, 『토닥토닥 수고했Day』

2022년 신달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한 구직·취업 여성을 위한 『응원DAY』를 운영하였다. 취업성공 여성을 위한 『취업축하Day』는 사전 상담예약을 통해 근무 중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축하선물 전달을 통한 꿈 이름 응원의 시간이 되었다.

찾아가는 취업지원으로 현장감 올리고, 취업역량 쑥~!

지역기업과 함께하는 기업체 탐방

지난 11월 8일 창업희망 여성 13명과 함께 '박기태 명장 장수당'을 방문하여 취·창업의 실질적인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취·창업희망 여성들이 처음 도전하는 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무진과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앞으로의 취·창업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되었다.

오기만 해도 취UP 능력UP 파워UP!

『2022년 대구 여성행복 일자리 박람회』

지난 9월 2일, 3일 양일간 대구엑스코 서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 여성들을 위해 '놀이동산'을 테마로 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76개의 기업이 온·오프라인 면접을 통해 구직자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위축된 구직여성에게 '즐거는 취업활동' 체험을 통해 취업 자신감을 회복하고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였다.

달서구 내 여성 근로자의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힐링 지원 『토닥토닥 마음처방, 건강한 일터 만들기』

신달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달서구청 경제지원과와 함께 지난 11월 1일부터 총 6회에 걸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달서구 거주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심리치유 힐링테라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향기 톡, 희망 톡(talk) - 아로마향기 테라피』와 『마음으로 힐링하기 - 요가테라피』 2개 프로그램에 총 112명이 참여해 직무스트레스와 고용불안 등에 대한 감정치유를 통한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문의 : 신달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053-219-2019)



「구민과 함께하는 2023 신년음악회」



2023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힘찬 출발과 희망에 찬 기운을 전하고자 하는 음악회가 개최된다. 이번 신년음악회는 국가 무형문화재 이수자인 '김현호'의 지휘 아래 '영남국악관현악단'이 음악회의 문을 열고 가장 한국적으로 노래하는 소리꾼 '장사익'의 소리와 대구출신의 미스 트롯 '정미애'의 노래로 구성될 예정이다. 새해를 맞아 가족 혹은 친구와 함께 흥겹게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 일시 : 2023. 1. 19(목) 19:30
- 장소 : 달서아트센터 청룡홀
- 출연진 : 영남국악관현악단, 장사익, 정미애, 김단희, 민정민 등
- 관람료 : 전석 무료
- 문의 : 053-584-9715

「장미꽃 필 무렵」



대구의 유일한 장미공원인 이곡장미공원에서 오감으로 장미를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5월의 장미를 오롯이 느끼고 싶다면 이곡장미공원으로!

- 일자 : 2023. 5. 19(금) ~ 21(일) (예정)
- 장소 : 이곡장미공원
- 입장료 : 없음
- 문의 : 053-584-9715

「일상으로 엮는 '달서 포토 에세이」



2020년부터 진행된 달서생활문화센터의 인기 프로그램. 휴대폰 카메라와 창작 시, 나만의 손글씨로 일상을 기록하고 하나의 작품집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디카시(디지털카메라 사진 + 시), 캘리그라피, 수제 책을 배워보고 싶은 달서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시기 : 2023년 3월 ~ 5월
- 장소 : 달서생활문화센터 장기점
- 수강료 : 없음
- 문의 : 053-584-8969

「프랑스자수를 통한 소소한 힐링 '바실마실」



프랑스자수 기법을 활용해 나의 옷, 생활물품을 꾸며 생활 폐기물을 줄이는 업사이클링 활동. 전문 공방에 찾아가기에는 부담스럽고, 유튜브로 혼자 익히기는 어려웠다면 <바실마실>을 통해 대면수업으로 프랑스자수 기법을 익혀보자.

- 시기 : 2023년 3월 ~ 6월
- 장소 : 달서생활문화센터 송현점
- 수강료 : 없음
- 문의 : 053-621-6566

DSAC 시리즈

국내외 최정상급 아티스트, 정제된 프로그램으로 선보이는 달서아트센터의 명품 공연

「다닐 트리포노프 피아노 리사이틀」

2011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우승과 함께 전 부문 그랑프리를 거머쥐며 누구보다 화려하게 세계무대에 등장한 러시아의 젊은 거장 피아니스트 다닐 트리포노프의 리사이틀

- 일시 : 2023. 2. 15.(수) 19:30
- 장소 : 달서아트센터 청룡홀
- 티켓 : R석 100,000원
S석 70,000원
A석 50,000원



「브루스 리우 피아노 리사이틀」

최고의 역사와 권위를 지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제18회 우승자 브루스 리우의 피아노 리사이틀

- 일시 : 2023. 3. 8.(수) 19:30
- 장소 : 달서아트센터 청룡홀
- 티켓 :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최하영 첼로 리사이틀」

2022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첼로 부문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첼리스트 최하영의 대구 첫 공연

- 일시 : 2023. 3. 24.(금) 19:30
- 장소 : 달서아트센터 청룡홀
- 티켓 : R석 50,000원, S석 30,000원

「힐러리 한 바이올린 리사이틀」

그라미 어워드 3회 수상, 빼어난 기교와 냉철하면서도 완벽한 연주를 선보이는 세계 최정상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의 리사이틀

- 일시 : 2023. 6. 1.(목) 19:30
- 장소 : 달서아트센터 청룡홀
- 티켓 : R석 120,000원, S석 90,000원, A석 60,000원

DSAC 아트 페스티벌

클래식부터 연극, 오페라, 대중음악까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 장르별 전문 예술 축제

「제1회 달서 패밀리 워크」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에서 어른까지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가족 공연 페스티벌

- 일시 : 2023. 5. 2.(화)~6.(토)
- 장소 : 달서아트센터 일원, 청룡홀
- 티켓 : 미정

「제3회 달서 국악」

예술감독인 대금연주자 이영섭을 중심으로 지역의 우수 국악인들을 한 무대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전문 국악 축제

- 일시 : 2023. 5. 11.(목)~12.(금)
- 장소 : 달서아트센터 와룡홀
- 티켓 : 10,000원

「제6회 피아노 워크 2023」

4일간 펼쳐지는 피아노의 향연.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들이 들려주는 주요 클래식 작곡가들의 대표곡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

- 일시 : 2023. 5. 16.(화)~19.(금)
- 장소 : 달서아트센터 와룡홀
- 티켓 : 10,000원

「제2회 레몬 뮤직 페스티벌 in 달서」

트렌디한 감각의 국내 대표 인디 뮤지션과 함께하는 청춘 페스티벌. 초여름, 시원한 얼음컵에 담긴 레몬처럼 청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축제

- 일시 : 2023. 7. 1.(토)~2.(일)
- 장소 : 달서아트센터 일원(플리마켓 푸드트럭), 청룡홀
- 티켓 : 1일권 30,000원, 2일권 50,000원

「제2회 렉처 오페라 in 달서」

지역을 대표하는 민간 오페라 단체들이 3주에 걸쳐 선보이는 해설이 가미된 명작 오페라 공연

- 일시 : 2023. 7. 7.(금), 7. 14.(금), 7. 21.(금)
- 장소 : 달서아트센터 와룡홀
- 티켓 : 20,000원

DSAC 시리즈

시민들의 문화 취향이 반영된 시즌별 프로그램, 전 세대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콘서트

「발렌타인 콘서트」

지난해 'ADORY' 단독 콘서트에 이어 2023년 국내 인기 인디 밴드와 함께 하는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 일시 : 2023. 2. 11.(토) 17:00
- 장소 : 달서아트센터 청룡홀
- 티켓 : 50,000원

「Playlist : Untitled」

프로그램 사전 미공개, 몽환적인 무드와 세련된 감성이 돋보이는 무대 위에서 진행되는 소규모 클래식 음악회

- 일시 : 2023. 3. 15.(수), 6. 21.(수), 9. 20.(수), 12. 20.(수) 19:30
- 장소 : 달서아트센터 청룡홀
- 티켓 : 20,000원

DSAC 로컬 아티스트 프로젝트

다양한 장르의 우수한 콘텐츠,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최상의 공연

「마법의 뮤직 콘서트 : 안생길 것 같죠? 생겨요, 좋은 일」

나태주, 이규경, 하상욱의 시를 테마로 한 음악과 미술이 함께하는 뮤직 & 매직 콘서트

- 출연 : 예술마을사람들
- 일시 : 2023. 2. 24.(금) 19:30
- 장소 : 달서아트센터 청룡홀
- 티켓 : 10,000원

「지하철 로맨스」

지하철역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듣는 로맨틱한 우리 가곡의 향연

- 출연 : 힘즈뮤직 이유밴드
- 일시 : 2023. 3. 31.(금) 19:30
- 장소 : 달서아트센터 와룡홀
- 티켓 : 10,000원

「Your Week's Background Music」

'비아트리오'의 리더 바이올리니스트 이주희와 대한민국 10대 기타리스트 유지원이 만든 '이유'가 들려주는 생활 속 익숙한 음악들

- 출연 : 힘즈뮤직 이유밴드
- 일시 : 2023. 4. 28.(금) 19:30
- 장소 : 달서아트센터 청룡홀
- 티켓 : 10,000원

「RE: 20세기를 노래하다」

격동의 시기를 지낸 20세기의 음악들을 국악기로 재해석하여 근대와 현대의 감성을 동시에 선사하는 공연

- 출연 : 우리음악양상블 이:담
- 일시 : 2023. 6. 2.(금) 19:30
- 장소 : 달서아트센터 와룡홀
- 티켓 : 10,000원

「사또전」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움직임 실현하는 'Y-T movement'의 신작으로 '변사또를 사랑한 성춘향'을 모티브로 한 가족 무용극

- 출연 : 와이타입무브먼트
- 일시 : 2023. 6. 30.(금) 19:30
- 장소 : 달서아트센터 청룡홀
- 티켓 : 10,000원

「All of the Rhythm」

클래식의 바로크 음악부터 재즈, 영화음악 OST까지 동·서양의 다채로운 리듬을 강조하여 현악기와 플루트 앙상블로 들려주는 특색있는 음악회

- 출연 : 엠케이예술 뮤즈앙상블
- 일시 : 2023. 7. 28.(금) 19:30
- 장소 : 달서아트센터 와룡홀
- 티켓 : 10,000원

“삶 속에 스며드는 문화예술” 달서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와 함께하세요.

생활문화인을 넘어 예술인으로서의 경험 제공

예술아카데미는 다양한 단기강좌와 예술인문특강, 실기강좌 등을 통해 수강생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단순히 강좌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좌를 통해 배운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하여 문화예술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3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달서아트센터 별관 2층 예술아카데미 갤러리에서 '개성에 맞는 맞춤형 수채화 / 유화(강사 서명숙)', '색연필 일러스트 & 보타니컬아트(강사 권희숙)', '수채화 / 유화(강사 이봉수)' 강좌 수강생들의 작품(총 45점)을 모아 전시회를 열었다.

이처럼 달서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에서는 앞으로도 수강생에게 '삶 속에 스며드는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작품 전시 외에도 공연이나 지역축제 등과의 연계를 통해 수강생이 문화예술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제1회 개성에 맞는 맞춤형 수채화 / 유화展



제2회 색연필일러스트 & 보타니컬아트展



제3회 수채화 / 유화展

2023년을 맞이하여 새 단장을 하는 예술아카데미

새해를 맞아 예술아카데미는 교·보재 구매와 시설 보수 등 수강환경 개선을 통해 새롭게 단장하는 한편, 예술아카데미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수강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강신청 시스템 개선, 우수한 강사진 초빙과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 수강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갈 예정이다. 수강생들은 2023년을 맞아 새롭게 단장한 예술아카데미와 함께 더욱 깊이 있고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예술아카데미 강사 공개 모집

예술아카데미에서는 강사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전문성 있는 강사를 채용함으로써 강좌의 질을 향상하여 구민의 취미·교양 함양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모집분야

- 클래식 - 국악 - 실용음악
- 미술 - 공예 - 무용
- 요가 - 댄스 - 교양(회화 등)

• 모집인원 : 총 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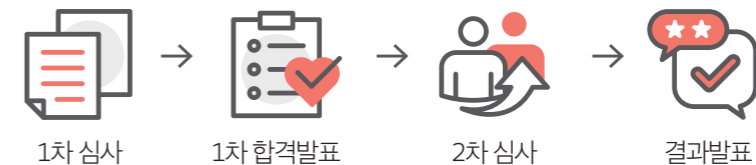
• 지원자격

- 관련 분야의 1년 이상 강의 경력자 또는 종사자
- 관련 분야 자격증(관련 전공학위, 국가 공인자격증 외) 소지자
- 기타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접수기간 : 2023. 1. 2(월) ~ 1. 9(월)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academysac@gmail.com)

• 선정절차



• 관련문의 : 예술아카데미 ☎053-584-8721~2



달서가족문화센터

가족심리테라피 I, II

대상별 그림 심리 검사를 실시 후 맞춤형 해설을 통한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 회복

- 대상 : 프로그램별 5가족
- 참가비 : 가족당 1만 원
- 접수 : 온라인(www.dsfcc.or.kr)
- 문의 : 운영지원팀(053-632-3800~2)

구분	일시 및 장소	구분	내용
I	'23. 2. 4(토) 10:00 3층 3강의실	6~7세 자녀와 부모	가족체계진단 (가족 각자가 그리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그려봄으로써 구성원 개별 심리 알아보기)
	'23. 2. 11(토) 10:00 3층 3강의실		가족 협동작품 (가족이 함께 만다라 그리기에 참여하여 하나의 결과물을 완성해보고 그리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알아보기)
II	'23. 2. 18(토) 10:00 3층 3강의실	초등 저학년 자녀와 부모	가족체계진단 (가족 각자가 그리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그려봄으로써 구성원 개별 심리 알아보기)
	'23. 2. 25(토) 10:00 3층 3강의실		가족 협동작품 (가족이 함께 희망이 자라는 가족 나무를 그려보고 각자 소망을 포스트잇에 적어봄으로써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방식 알아보기)

「겨울 풍경 아크릴화」

- 일시 : 2023. 1. 5(목) 19:00 ~ 21:00
- 참가비 : 1회 5천 원(재료비 1만 원)
- 강사 : 장하윤(아트고리 대표)

「슬기로운 집밥 생활」

- 일시 : 2023. 1. 3(화) ~ 1. 31(화) 10:00 ~ 12:00
- 참가비 : 4회 2만7천 원(재료비 회당 2만 원)
- 강사 : 임태복(한식·양식조리기능사)
- 1. 얼큰동태알탕, 삼치구이 유자청소스조림
- 2. 코다리 무조림, 굴전
- 3. 차돌애호박잡채, 무파래무침
- 4. 궁중식소고기간장떡볶이, 배각두기

「영양 가득 실속 가정식」

- 일시 : 2023. 1. 5(목) ~ 1. 26(목) 10:00 ~ 12:00
- 참가비 : 4회 2만7천 원(재료비 회당 2만 원)
- 강사 : 윤은진(한식·양식·중식·일식 조리기능사)
- 1. 지라시스시, 고구마크로켓
- 2. 굴두부전국찌개, 빨간메추리알장조림
- 3. 카오팟, 구운버섯샐러드
- 4. 콩비지찌개, 어묵잡채

「집에서 즐기는 전국 맛집 요리」

- 일시 : 2023. 2. 7(화) ~ 2. 28(화) 10:00 ~ 12:00
- 참가비 : 4회 2만7천 원(재료비 회당 2만 원)
- 강사 : 임태복(한식·양식조리기능사)
- 1. 제주전복밥, 생갯잎김치
- 2. 와촌돼지찌개, 봄동겉절이
- 3. 청송닭떡갈비, 무말랭이김치
- 4. 나가사키짬뽕, 차돌숙주볶음

「퇴근길, 달달한 베이킹」

- 일시 : 2023. 2. 7(화) ~ 2. 28(화) 19:00 ~ 21:00
- 참가비 : 4회 4만 원(재료비 회당 1만5천 원)
- 강사 : 최다슬(제과기능사)
- 1. 마블 사브레 쿠키
- 2. 발렌타인데이 다크 브라우니
- 3. 베이비 슈
- 4. 딸기 빈티지 케이크(미니)

신달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일자리로 리턴, 내 꿈도 리셋

여성들의 행복한 내일(Job)을 위해 취업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취업매칭을 통한 여성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마련하고자 한다.

취업지원 집단상담프로그램 「내 일(Job)을 만나다」

- 일시 : 2023. 2. ~ 11월 중 상시 운영
- 장소 : 달서가족문화센터(신달서새일센터) 3층
- 대상 : 취업희망 여성 누구나(고용보험 가입자 및 사업 자일부 제외)
- 내용 : 일자리 제공(취업연계), MBTI성격검사,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역량강화 「직업교육훈련」

- 일시 : 2023. 3. ~ 11월 중
- 장소 : 달서가족문화센터(신달서새일센터) 3층
- 대상 : 새일센터 연계 미취업 여성
- 내용 : 여성특화 취업직종(돌봄·조리·간호·회계사무) 및 여성 경쟁력 강화 창업과정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취업 매치UP」

- 일시 : 2023. 2. ~ 11월
- 장소 : 달서가족문화센터 및 연계 기관(※ 유동적 운영)
- 대상 : 새일센터 연계 구직·취업자
- 내용 : 취업·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심층상담, 자기탐색(퍼스널컬러 진단), 취업컨설팅, 노무상담, 고충상담 등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굿잡(Good Job)버스 & 카페」

- 일시 : 2023. 3. ~ 11월 중
- 장소 : 대형마트, 지역소상공 카페 등 연계 운영
- 대상 : 지역 내 취업희망 여성 누구나
- 내용 : 맞춤형 취업상담, 현장면접, 노무·심리상담, 취업응원 이벤트 등

취업·직장적응 지원 「구직·취업자 동아리 & 간담회」

- 일시 : 2023. 2. ~ 11월 중
- 대상 : 새일센터 구직등록 및 취·창업자 대상
- 내용 : 취업역량개발을 위한 동아리 지원, 취업축하Day, 간담회 등을 통한 구직·취업활동 응원, 고용불안 및 스트레스 해소, 고용유지 격려 기회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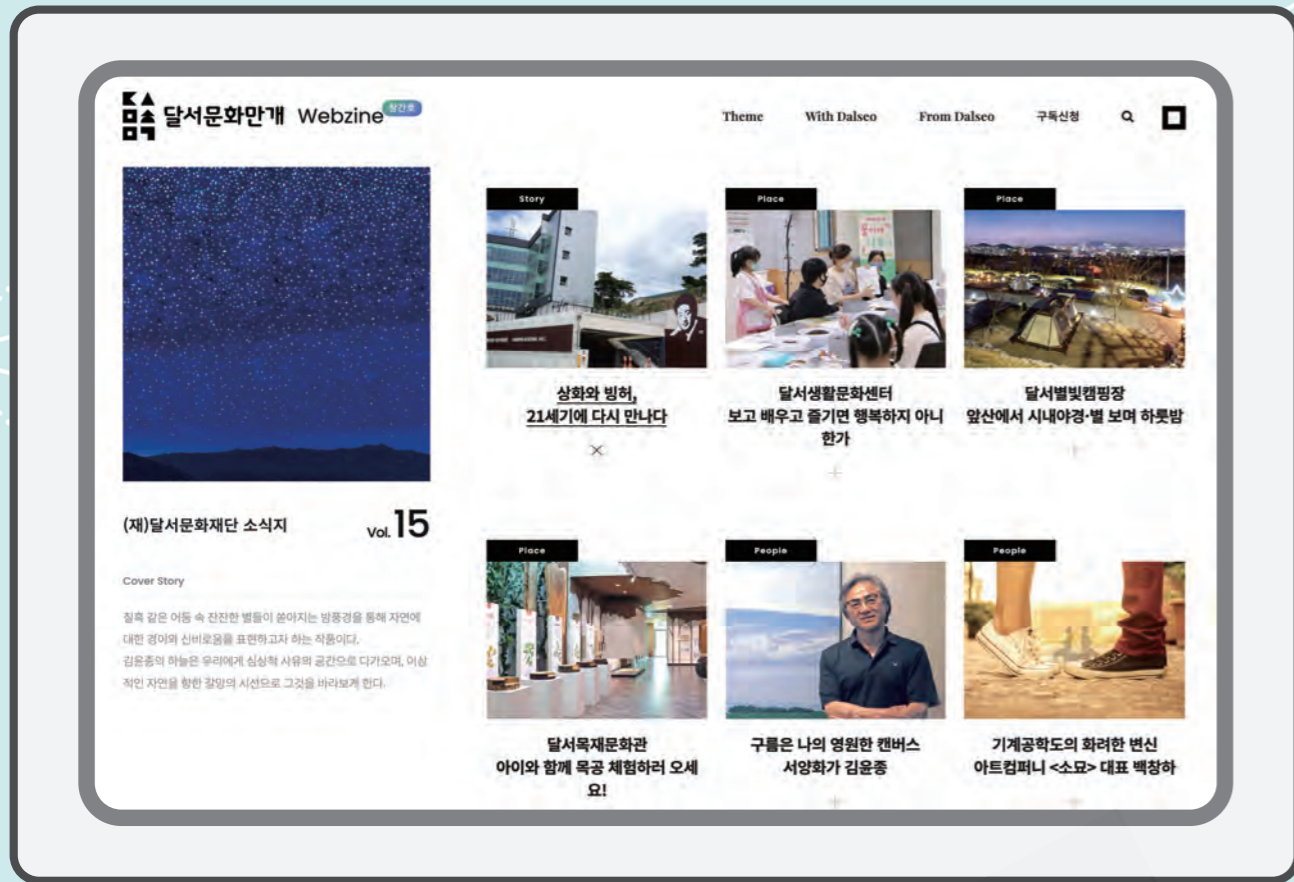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인식개선교육」

- 일시 : 2023. 2. ~ 상시 운영
- 대상 : 새일센터 연계 기업체
- 내용 : 법정 의무교육, 양성평등 인식개선교육 등 지원



문화가 꽃피는 도시,
달서문화재단이 만들어 갑니다

달서문화만개 웹진 구독



www.dscf.or.kr



달서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dscf.or.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dalseoculture2014>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alseonculture/>